

잠재적 범죄위험요인으로서의 정신병질(psychopathy)*

이 수 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허 재 홍

한림대 학생생활 상담센터

본 문헌연구는 국내에서 자세하게 소개된 적이 없는 정신병질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범죄의 잠재요인으로서 정신병질이 어떤 활용도를 지닐 수 있을지를 광범위하게 추정하여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시대적으로 정신병질의 개념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성격의 결정요인들과는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 나아가 정신병질자의 행동특성들은 무엇인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병질의 평가방안과 재범예측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형사정책 제도 내에서의 활용도를 탐색하였다.

주요어 : 정신병질, 반사회적 성격, 위험성 평가, 재범예측

* 이 논문은 2004년도 경기대학교 교내 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짐.

† 교신저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산 94-6,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E-mail : suejung@kuic.kyonggi.ac.kr

최근 법무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안에 따라 이 법안의 폐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해당 정책위원회의 위원들의 견해는 ‘유지/개선’과 ‘즉각 폐지’로 갈려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무자들은 보호감호제도의 즉각 폐지가 물고 올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대체법안의 마련에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이 안전에 대하여 가장 민감하게 떠오르는 사안은 범죄행동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논쟁이다. 즉 ‘잠재적인 범죄위험성이란 무엇인가’, ‘범죄위험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인가’, ‘정의가 가능하다면, 범죄위험성을 측정·평가하는 것도 가능한가’, 나아가 이렇게 측정된 범죄위험성을 근거로 하자면 재범은 예측할 수 있는가’, ‘재범예측 시에는 어떤 종류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가’ 등의 의문들이 이 주제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사회에 막대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고위험군에 대한 선별이 가능하고 이들의 미래 위험행동이 비교적 근접하게 예측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들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의 정당성은 선량한 시민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비교적 쉽게 대중으로부터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보호감호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여론 상 힘들겠으나, 경험적인 근거를 토대로 하여, 범죄위험군이 발생시킬 수도 있는 사회적인 위험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교정하고 치료한다면 이를 목적으로 하는 대체법안의 입안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이런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자면 범죄자의 죄질에 대한 경중을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잠재적인 범죄위험성을 평가하여 아직 저지르지도 않은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는 일은 더욱 불가능하게만 보인다.

하지만 범죄예측이 현대 형사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온 까닭은 그것이 형사정책의 성패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성에 있어 심각한 오류의 위험이 있음(Monahan, 1981, 1984, 1993, 1996)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위험성에 대한 측정과 예측은 수형자의 선별구금, 보호관찰부 형의 선고와 집행의 유예, 보호관찰부 가석방, 또는 각종 전환제도 등, 실제 형사절차 상의 수많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 또한 실정이다.

위험성의 측정을 토대로 한 범죄의 예측은 예방단계, 수사단계, 재판단계, 그리고 교정단계 등 형사사법의 거의 모든 단계에서 유용한 판단근거가 되고 있다. 우선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서는 잠재적인 범죄자를 식별하여 그들의 범죄성 발현이나 심화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수사단계에서의 범죄예측은 수사를 종결시키고자 할 때 범죄자의 처리나 처분을 결정할 목적으로 시행되는데, 특히 소년범의 경우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이 필요한지, 만일 개입이 필요하다면 어느 수준까지가 필요한 것인지를 결정짓는데에 활용된다. 재판단계에서 역시 범죄성의 측정 및 예측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데, 예컨대 처우나 형벌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재범가능성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만 한다. 사회복지를 전제로 한 처우의 경우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만일의 경우에 발생시킬 수도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될 수밖에 없다. 교정단계에 있어서는 범죄위험성을 수형자 개개인 별로 상세하게 측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자료는 교화개선의 방향을 설정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석방과 이차적인 범죄를 예방하는데에 활용될 수 있다.

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는 법을 준수함으로써 집단 구성원들의 생존을 보장한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¹⁾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주변의 관심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이들 가운데서도 특히 준법행동에 더 어려움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²⁾ 많은 주의가 기울여지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들에 대한 연구는 오랜 동안의 역사를 지니게 된다.

위법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일군의 대상이,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을 것이라 가정하는 범죄성향에 대한 심리학적 전문용어는, 반사회적인 성격장애의 개념이다. 주로 반사회적인 행동에 근거하여 진단되는 이 임상군에 대해 최근에는 좀더 세분화된 정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e.g., Hare, 1970, 1986, 1996; Hare, Forth, & Stachan, 1992). 정신병질(psychopathy)이라는 개념이 최근에는 반사회적 성격에 대한 대체개념으

로서 형사정책 분야에서는 특히 자주 언급되는데, 애초에는 사회적 규범이나 법에 순응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성을 총칭하여 말하는 비임상적 용어로서 통용되다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자기중심성과 죄책감의 결여, 동정심과 수치심 부족, 애정능력의 부재 및 통찰력 부족,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능력의 부족, 피상적인 매력 등 구체적인 성격특성들을 정신병질의 판단근거로 삼게 되었다.

정신병질 개념의 타당도에 대한 연구들은 지난 20년간 북미 지역 법정심리 혹은 범죄심리 분야를 가장 뜨겁게 달군 연구주제가 되어 왔다. 정신병질에 대한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는 최근 위험성의 평가와 재범예측 분야에서 캐나다 대법원³⁾과 미국의 텍사스, 오레곤 주 법원 등으로부터 공식적인 인가를 받아내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범죄수사 분야에서도 범죄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의 주요 기준으로 채택된 바 있는데, Petherick(2003)은 범죄현장의 특성을 토대로 범죄자의 유형을 정신병질적(psychopathic) 유형과 정신증적(psychotic)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전자에 해당하는 범죄자의 사건현장은 계획적이고 매우 잘 정돈된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사건현장에 우발적이고 폭발적인 폭행의 흔적들이 있고 비구조화된 특징들이 발견된다고 하였다. 피해자의 선택에 있어서도 전자의 경우

1) 각 개인의 권리를 특히 중요시하는 것이 사회계약설이다. 사회계약설에서는 사회란 각 구성원들의 필요에 따라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각 구성원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것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본다. 이보다 앞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정의라고 하면서 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법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법의 기능 중 하나는 구성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옹호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이는 사회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발달한 사상이고 고대에는 법의 기능은 각자의 권리를 유지시켜 주는 것보다는 집단유지를 통해 종족을 유지시키는 데 더 의미가 있었다.

2) 이들을 부르는 용어는 다양하게 변천되어 왔다. 근래 1800년대에 Pinep] *manie sans dliire* 라고 한 이래로 Psychopathy, Sociopathy 등 다양하게 용어가 바뀌다가 최근에는 DSM에서는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APD)라고 하고 ICD에서는 Dissocial Personality Disorder라고 부른다

3) 캐나다 대법원(FC 870, T-1725-02 Vancouver, B.C. [2003])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책임을 근거로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할 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때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는 주체는 사회과학, 행동과학 의학 분야에서 대학원 수준의 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PCL-R 등과 같은 표준화된 위험성 평가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위하여 두 평가자의 평균치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에는 아예 면식이 없는 낯선 자를 선택하지만 정신증적 범죄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어떤 식으로든(한 동네에 산다든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아가 살인사건의 경우 정신증적 살인범은 범행 후 시체를 사건현장에 그대로 남겨두지만 정신병질적 살인범은 시체를 교묘하게 유기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실제사건에 이런 기준을 적용하고 보면, 전북 고창 연쇄살인의 경우에는 범인이 정신증적 소양을 지녔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는 반면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주범이 상당히 정신병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학적으로 보자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 이상으로는 사실상 구분이 불가능한 이들 사건에 대해(참조 박순진, 2003) 범죄심리학적 성격특성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사건에 대한 좀더 많은 이해를 돕는다. 물론 이들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는 정신병질과 정신증적 범죄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보다 더 큰 도움이 되겠으나 이는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다. 대신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정신병질(psychopathy)이라는 개념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형사정책 분야에서의 활용도를 탐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논문의 서두에는 정신병질이란 개념의 등장과 그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시차 순으로 살펴보고, 비행잠재력의 안정성을 가정하는 정신병질의 개념이 범죄학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인지를 설명할 것이다. 후반부에서는 개인이 지닌 정신병질적 소양을 측정하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정신병질과 같은 심리적 소양에 대한 평가가 재범을 예측하는 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 정리할 것이다. 이 같은 정신병질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는 국내 형사정책 분야의 현장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이다.

정신병질 개념의 역사

정신병질적 특성에 대한 관심은 애초에는 정신의학적 병리개념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성격장애 중 한 범주인 반사회적인 성격장애에서 현대 정신병질 개념의 가장 오래된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그 후 이 개념은 한 때 사회병질이라 불리우기도 하였다. 정신병질에 대한 오랜 연구전통은 다음과 같이 시대별로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사회에 순응하지 못하는 사람의 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던 Theophrastus가 기술한 ‘비양심적인 사람’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19세기 초를 상한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19세기 초 개념

19세기 초 철학자나 정신의학자들의 관심은 ‘자유의지’에 관련된 것으로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과연 이해할 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마음(mind)은 곧 이성(reason)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미쳤다’ 혹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할 때, 늘 이성에 결함이 생겨서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Pinel은 ‘습관적으로 이기적이며 반사회적 행동을 하지만, 그런 상황이 정신적 질병의 징후를 나타내지는 않는 사람들’을 구별해 낼 필요성을 느껴, 이들을 *manie sans delire* 라는 용어로 지칭하였다.

‘*manie sans delire*’라는 용어는, 잔혹함·무책임하

며, 도덕심이 없는 것과 같은 특징들을 포함하는 행동장애로 기술되는 격앙됨이 없는 조증상태로, Pinel에 의하면 범죄행동은 일종의 병리적 증상으로 도덕적으로는 중립적이라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Benjamin Rush(1812)는 Pinel이 발견한 것과 같은 현상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Pinel과는 달리 멀쩡한 정신을 가져도 사회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 하다, 즉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Pinel과는 상이한 견해를 보이기도 하였다.

Prichard(1835)는 Pinel이 *manie sans délire*라고 명명한 임상적으로 이상한 집단의 장애자들을 ‘moral insanity’라는 용어로 재명명하면서, 이들은 ‘종교적으로나 도덕·문화적 행동과 같이 사회적 기대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실패한, 명백한 혼란 상태와 뻔뻔함을 지닌 존재들’로 그것을 “정신병의 증거”로 규정하였다.

Prichard는 Pinel의 ‘*manie sans délire*’를 받아들이면서도 그들에 대한 Pinel의 가치중립적인 태도는 부정하며, 이들이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Prichard는 정신이상(insanity)을 두 가지로 나누어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의 결함(defects in reasoning)에 의해 나타나는 정신이상(insanity)과 정서의 결함(defects in natural affection)으로 인한 정신이상이 별개로 존재할 수 있으며, 유형에 따라 행동에 대한 책임 여부도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Prichard의 입장은 설득력있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졌고, 그가 명명한 ‘도덕적 정신이상(moral insanity)’도 공중보건과 정신의학 분야에서 반세기 이상 사용되었다.

이 시기에 나타났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다른 설명들을 보면 신경중추에 도덕적인 행동을 관장하는 곳이 있는데 이 곳에 결함이 있어서

색맹이 있는 것과 같이 도덕맹이 있다는 견해도 있었고(Maudsley, 1874), 이 견해에 인류학적인 설명을 곁들이기도 하였다 (Lombroso, 1872-1885; Gouster, 1878).

19세기에서 20세기 초 개념

19세기 초반에는 반사회적 성격에 대한 개념화가 영국의 정신과 의사나 법조계 인물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이 시기에는 주로 독일 정신과 의사들에 의해 개념화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는 특히 이전에 부과되었던 가치(value)개념은 제외되었고 그보다는 객관적인 관찰연구(observational research)에 더 초점을 두게 되었다. 이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Koch(1891)인데 Koch는 ‘도덕적인 정신이상(moral insanity)’이라는 용어를 ‘정신병질적 열등성(psychopathic inferiority)’⁴⁾이라는 용어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정상적인 것 같지 않은 모든 ‘정신적 이상(mental irregularity)’을 이 범주에 넣었다. Koch는 이 정신병질적 열등성은 신체적인 기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뇌의 기질적 열등성 때문에 유발된다고 믿었다.

Koch의 기질적으로 열등하다는 개념은 Adolf Meyer(1904)에 의해 미국으로 전해졌으나 Meyer는 기질적 열등성을 정신병질적인 경우와 정신신경증적인 경우로 나누어 보았다. Koch와 달리 Meyer는 신경증의 경우 대부분 심인성 장애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하여 Koch와는 조금 다른 견해를 보였다.

한편 기술정신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Emil Kraepelin은 반사회적 성격에 대해 자신이 쓴 정

4) 현대의 Psychopath라는 용어는 Koch의 명명에서 직접적으로 유래된 것이다.

신의학 교과서 2판(1887)에서는 ‘육구충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에 선천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였다가 5판(1896)에서는 정신병질적 상태(psychopathic state)라고 하면서 반사회적 성격을 퇴행 중 하나라고 간주하였다. 그 후 7판(1903-1904)에서는 정신병질적 성격(psychopathic personality)이라고 명명하면서 이를 4종류⁵⁾로 구분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7가지 하위특성들⁶⁾로 요약하기도 하였다. 또한 8판(1915)에서는 정신병질을 정서 혹은 의지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는데 이는 DSM(Diagnostic Statistical Manual)에서 말하는 품행장애(Conduct Disorder; CD)와 동일하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1940년대까지

이 시기에는 다양한 실증적 범죄이론들의 등장과 함께, 반사회적 행동이 기질적 요인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인가 하는 연구문제가 화두로서 대두하게 된다. 처음에는 환경설이 득세하였지만 중간에 잠시 퇴색하였다가 1920년대에 이르러 다시 설득력을 얻게 된다.

이 시기에 기질적인 결함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인 August Wimmer(1929)는 1920년에서 1927년까지 정신병동에 입원한 9,500명 가운데 2,000명이 기질적 정신병질(constitutional psychopathy)로

5) 여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력적이나 도덕성이나 책임감이 없는 병적인 거짓말쟁이나 사기꾼, 방화나 도박, 그리고 절도에 몰입하는 충동에 의한 범죄자,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계속적이고 다른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 전문적인 범죄자, 떠돌면서 성인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불량자가 있다.

6) 쉽게 흥분하며, 불안정하고 충동적이며, 과묵스러우며 거짓말을 잘하고 사기꾼 같고 결핍하면 싸움을 하려는 기질적 경향성.

진단되었다고 하면서 정신병질은 멘델의 법칙에 따라 유전된다고 주장하고, 결혼억제를 통해 인종을 계발시켜 나가는 것에 찬성하였다. 이렇게 범죄성향의 유전적 소양을 중시하는 입장을 지닌 연구자들은 이후 환경적 영향력을 강조하는 입장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게 된다.

이 시기까지 연구의 주된 경향은 범죄행동을 저지른 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개념적 틀을 구성하여 왔다. 하지만 20년대에 이르러 처음으로 비범죄자 가운데에서도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을 언급하게 되는데, Kurt Schneider(1923)는 범죄자들 중 상당수는 이미 청소년기부터 비행을 저질러왔고, 비행발생이 어릴 때일수록 치료하기가 더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범죄자들에게도 있지만 일반 사회에도 많이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완전범죄에 성공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정신병질적 성격과 겉으로 드러난 반사회적 행동을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즉 정신병질을 행동으로 정의할 것인가 아니면 성격으로 정의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Partridge(1930)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사회병질적 성격과 겉으로 드러나는 반사회적 행동은 일치할 것이 자명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면에 있는 성격 구조와 일반 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신병질이 공존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1920년대 정신분석 이론과 결부되면서, 산재되어 있던 정신병질의 특성(character)이 정신분석가들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정리되기 시작한다.

비행행동에 대해 정신분석적으로 처음 개념화를 시도한 사람은 Aichorn(1925)이다. 그는 비행아(delinquent children)들이 부모의 규준을 못 받아들이고 자극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초

자아에 결함이 있어서 비행을 저지른다고 설명하였다. Abraham(1925/1927)은 Aichorn의 견해를 따르면서도 이 견해를 확장시켜 한 쪽 끝에는 자기애적 특질을 두고 또 다른 한 쪽에는 반사회적 특질을 두었다. 정신분석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이들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7) 대체로 정신병질은 초자아의 결함으로 인해 생긴다고 보고 있다.

특히 Alexander(1923/1930, 1930, 1935)는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정신병질과 범죄행동을 처음으로 평가한 사람인데, 병리를 네 수준, 즉 신경증, 신경증적 성격, 정신병, 범죄행동 군으로 나누었다.⁸⁾ 그(1935)는 이렇듯 정신병리를 네 수준으로 나누기는 하였으나 반사회적 행동은 막상 정신내적 과정, 사회적 압력, 그리고 기질적 소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들 외에 정신병질과 관련된 다른 학자들의 설명을 보면 Wittel(1937)은 신경증적 정신병질을 단순 사회병질과 구분하였고⁹⁾ Karpman(1941)은

정신병질을 특발성 정신병질(idiopathic psychopathy)과 증후성 정신병질(symptomatic psychopathy)로 나누었으며¹⁰⁾ Levy(1951)는 박탈 정신병질(deprived psychopathy)과 탐닉 정신병질(indulged psychopathy)로 나누었는데 이는 Millon(1969)이 반사회적 사회병질과 자기애적 사회병질이라고 구분한 것과 유사하다.¹¹⁾ Fenichel(1945)은 정신병질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정신병질에서 보이는 충동(impulsiveness)과 신경증에서 보이는 강박충동(compulsion)을 구분하였다.

한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는 기질적 정신병질의 실체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졌는데, 원래는 정신병질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떤 기질이 불우한 환경에 잘못 적응하여 정신병질이 된다는 설(Stürup, 1948)과 누구나 정신병질적 소양은 다 가지고 있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견딜 수 있는 힘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설(Helweg, 1948) 등이 대비되어 제시되기도 하였다.

20세기 중반

이 시기에는 범죄행동을 성격요인으로 설명하려는 입장이 지배적인 설득력을 얻는다. 1952년 미국 정신의학회는 정신병질이라는 명칭 대신에 사회병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사회병질자를 반복적으로 범죄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라 규정한다. 하지만 정신병질적 소양은 행동 이외에도 잠재적 소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합하다는 입장이 대두되면서 1968년 미국의 정신의학회는

7) Reich(1925)는 초자아가 자아의 경직된 조절능력 하에서 표현을 못하게 되면서 이드의 본능과 관련이 되는 유혹을 받을 때 이드의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행이 발생한다고 하였고 Coarit(1927)는 '기질적으로 정신병질인 것(constitutional psychopathic)'은 아동기의 자아 이상(ego ideal of childhood)이 사회의 자아 이상(ego ideal of society)으로 대체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Partridge(1927)는 정신분석적 개념을 이용하여 정신병질의 욕구는 충족되지 못한 구강기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8) 이 네 수준은 무의식적인 충동에 대해 자아가 견딜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배열한 것으로 신경증이 자아가 견디는 힘이 가장 강하고 범죄가 가장 약하다. Alexander가 생각하기로는 신경증적 성격은 정신병질의 밑에 깔려 있는 성격이었다.

9) 신경증적 정신병질은 남근기에 고착되어 양성애적 충동을 두려워하는 것인 반면 단순 정신병질은 양성애에 탐닉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발성 정신병질은 기질적으로 죄책감이 없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무감각하며 욕심이 많고 공격적이라는 점에서 진짜 정신병질이고 증후성 정신병질은 정신병질과 유사한 신경증을 말한다.

11) 박탈 정신병질은 무자비한 양육의 결과이며 탐닉 정신병질은 부모가 하는 과대평가의 결과이다.

DSM III에서 이런 병리적 특성을 반사회적인 성격장애라 지칭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성으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의 권리를 쉽게 무시 혹은 침해하는 경향, 그리고 이런 경향이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 초기부터 꾸준히 발현된다고 규정하였다.

이런 범주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 Leary (1957)는 사회적/대인관계적 개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의 특징으로 '반항을 통한 저항'이라 명명하였다. 그는 이런 사람의 범주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 지칭하였는데, 이 부류는 곧 오늘날의 반사회적 성격과 유사하다. 반사회적 성격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심리학자는 Eysenck나 Bandura를 들 수 있겠는데 Eysenck(1964/1967)는 기본적인 성격 특성의 조합으로 반사회적 성격이 구성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범죄자는 잘못된 학습으로 인해서 '양심의 속박'을 습득하는데 실패한 사람이라고 보고 성격 차원과 범죄 행동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Eysenck는 사람들의 성격이 외향성 정서성 강인성, 허위성의 네 차원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생리적으로 각성 수준이 낮아서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정서성이 높은 사람은 정서가 불안정하고 자극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고통스런 자극에 대해서는 과도한 공포 반응을 보인다. 그런데 외향적이면서 정서성이 높은 사람은 충동적이고 범죄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편 강인성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무감각하고 감정표현이 없고 위협을 지각하지 못하며 사람들을 싫어하는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반사회적 성격장애자와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며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재범율도 높다고 한다. 상습 범죄자들은 일반적으로 외향성 정서성

그리고 강인성 세 차원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다고 Eysenck는 주장했다. Eysenck가 논하고 있는 범죄자는 상습적 폭력성 범죄자에 가깝다.

이에 비해 Bandura는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이론으로 반사회적 성격을 설명하였다(Bandura & Walters, 1959). 사회학습이론이라고도 불리우는 그의 이론에서는 개인의 내적 기제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시각을 외적인 요인으로 확장하고 긍정적 사회행동 뿐 아니라 반사회적인 사회행동 역시도 환경과의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습득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성격이론이나 학습이론으로 범죄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이 시기의 가장 큰 주류로 자리 잡았지만 한편으로 신경생물학적으로 범죄를 설명하려는 시도도 이 시기에는 다양하게 등장한다. 독일의 정신과의사였던 Hans Berger(1929)가 EEG로 뇌의 전기적 활동을 관찰가능하게 하는 연구방법론을 제시한 후, 연구자들(Hill, 1952)은 범죄자들의 뇌파검사 결과 이들의 자발뇌파가 정상 성인과는 다른 양태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성인이가 되면 뇌파는 비교적 안정적이 되지만 공격적인 정신병질자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아동기 때의 특징을 보여, 델타파와 세타파가 상대적으로 많이 관찰된다고 한다. 뇌파의 파장이 느리며 불규칙한(Arthur & Cahoon, 1964; Ehrlich & Keogh, 1956) 것은 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정신병질자들의 자기중심적 특성, 보상지연의 어려움, 자극에 대한 추구경향 등을 반영하는 것이라 Hare(1970)는 지적하였다.

20세기 후반

이 시기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반사회적 성격을 조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Burnstein(1972)이 도덕적이거나 판단이 배

제된 용어를 사용하여 정신병질적 특성의 발달 과정을 설명하려 하였고¹²⁾ Erich Fromm(1973)은 역사적인 맥락과 문화적인 맥락에서 반사회적 성격의 기원을 찾으려고도 하였다.

Otto Kernberg(1970, 1984)는 반사회적 성격을 위계로 보고 병리가 가장 심한 것부터 차례대로 반사회적 성격장애군(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Proper), 악성 자기애(Malignant Narcissism), 자기애적 성격장애군(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Proper)으로 나누었다. Aaron Beck은 인지주의적 관점에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형성하는 역기능적인 신념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Beck & Freeman, 1990).

이후에는 반사회적 성격을 가능한 객관적으로 연구해 보려는 시도들이 주로 이루어져 여러 경험적 연구들(Cosra & Widiger, 1994; Hare, 1984, 1986; Cloninger, 1987; Schulsinger, 1972)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하여 오늘날의 세분화된 정신병질 개념을 형성하기에 이른다. 반사회적인 성격장애 군으로부터 정신병질이라는 개념이 차별화된 계기는 1990년대 초 Hare와 동료연구자들(Hare, 1970, 1978, 1984, 1986, 1996)의 정신병질에 대한 측정도구인 PCL의 개발로 볼 수 있는데, 그후 이들은 PCL-R (Psychopathy Checklist - Revised; Hare, 1986; Hare & Craigen, 1974; Hare, Forth, & Stachan, 1992)을 활용하여 정신병질적 특성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다시 한 번 설명하도록 하겠다.

Pinel을 시발점으로 하여 이루어진 정신병질의 개념에 대한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정신병질은 기질적인 것인가 아니면 환경적인 것인가? 둘째 정신병질을 도덕적으로 비

난할 수 있는, 즉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 셋째 이면의 성격과 반사회적 성격의 발현을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인가? 이 가운데 첫째 문제 즉 기질의 영향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특정 기질이 있고 여기에 환경이 작용하여 반사회적 성격이 형성된다고 보는데 대체로 견해가 일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문제, 즉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대체로 비난성, 즉 가치를 배제하는 쪽으로 수렴되어가는 경향이 있으나 셋째 문제, 즉 이면의 성격과 반사회적 행동 경향을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 공론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대표적인 예로 반사회적인 성격장애에 대한 유럽의 진단기준과 미국의 진단기준이 전과의 포함여부에 있어 여전히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서도 이해될 수 있다¹³⁾.

정신병질적 소양의 발달

- 13) 반사회적 성격 진단의 기준 : **[유럽]** 1. 낮은 좌절 인내; 낮은 자아 기능과 초자아 기능 2. 짧게 나타나는 정서와 동기 3. 대인간 갈등의 부재(약한 초자아와 자아 기능으로 인한), 대인간 갈등만 없고 해결책은 발산해 버리는 것. 위험 상황에 대해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음 4. 대상관계가 결손 되었거나 없거나 미숙한 상태 5. 방어 전략 : 부인, 공격성의 투사적 동일시, 분리, 투쟁 투쟁 반응 행동 모방 6. 증상으로서 전반적인 성격기능 (신경증과 반대로) **[미국]** 1. 긴장유발과 새로운 것을 찾는 행동 2. 경험적으로 유발된 공포/불안에 대해 반응이 없거나 지연 3. 충동적이고 외현적인 종종 공격적 행동에 대한 좌절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전 4. 분별능력이 떨어짐 5. 현재 환경 내 표면 의미나 행동 패턴의 모방 6. 극도의 장의존성 7. 다른 사람을 조정하고 통제하려는 경향 8. 범죄전과

12) Burnstein은 반사회적 성격을 manipulative personality 라고 하였다.

청소년 비행 및 범죄를 연구해 온 범죄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반사회적인 행동율은 17세를 즈음하여 정점에 달했다가 점점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Blumstein & Cohen, 1987; Farrington, 1986; Hirschi & Gottfredson, 1993). 하지만 범죄통계를 근거로 한 이런 주장은, 앞서도 언급하였다시피 단기횡단적 연구에 근거한다. 하지만 비행청소년과 성인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장기종단 연구를 수행한 경우에 있어서는 개인의 반사회적인 특질이 그리 변화무쌍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약 5%에서 6% 정도 되는 범죄자들이 전체 범죄 중 50% 이상이나 되는 범죄들을 저지른다고(Farrington, 1987; Farrington, Ohlin, & Wilson, 1986; Wolfgang, Thornberry, & Figlio, 1987) 아동기 때 공격성 수준에서 상위 5%에 해당되는 소년들 중 약 39%가 1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평균 이상의 공격성을 유지한다는 연구(Patterson,

1982)를 시사한다. 다시 말해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비행력을 보인 사람들 중 소수는 비교적 평생 동안 반사회적인 특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림 1은 이런 가정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Moffitt(1991, 1993)은 이들이 DiLalla와 Gottesman(1989)이 언급하였던 ‘평생 지속적인 비행자’라고 지칭하면서 이들은 발달과정 상의 특성 때문에 일시적으로 비행력을 지니게 되는 사람들과는, 반사회적인 행동경향에 있어 매우 다른 특성을 지닌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1,037명의 뉴질랜드 아동들의 반사회적인 행동경향을 2년 주기로 관찰하였는데, 그 결과 표본의 5% 정도에 해당되는 매우 반사회적인 아동들의 경우 시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반사회적 행동변산 중 약 68%를 매우 안정적으로 설명하여 줌을 발견하였다. 나아가 소년들의 초범연령이 안정적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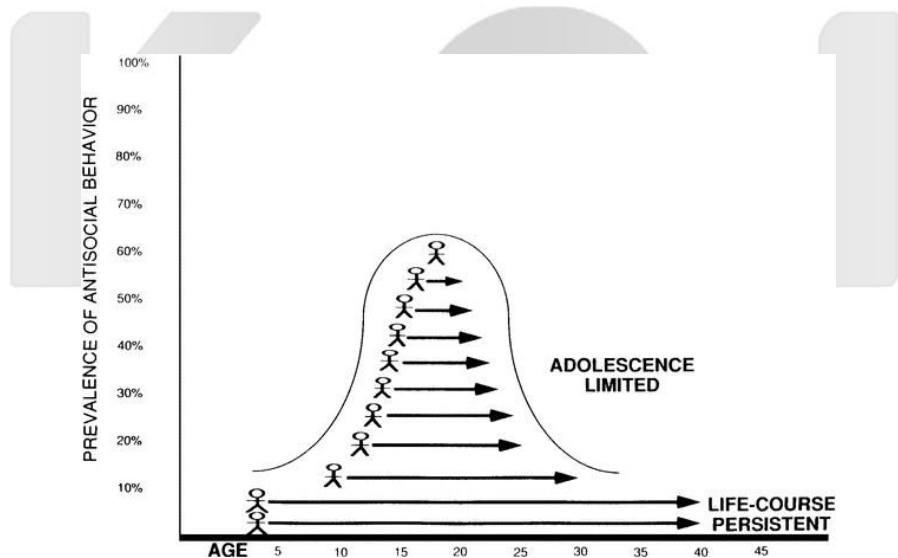


그림 1. 평생 지속적인 비행경력자와 청소년기 일시적인 비행자와의
가설적 비교곡선 (Moffitt, 1993)

1982)들은 청소년기 비행력이 단지 발달의 현상 행력 예측에 주요할 수 있는데, 청소년기 이전에 만으로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강 이미 비행을 시작했던 소년범일수록 모든 반사

회적인 행동지표 상에서 지속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보이기도 하였다 (Taylor, Iacono, & McGue, 2000). 이들 연구들은 모든 청소년기의 비행은 단지 일시적인 발달과정 상의 특성이 아닐 수 있으며 지속적인 성격 혹은 행동특성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분노와 공격성

유아기 때의 공격성의 출현은 가장 기본적인 정서인 분노의 표출과 관련성이 있다. 분노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정서는 자기-조절 장치와 사회적 의사소통 기능 때문에 생존에 필수적이다 (Stenberg & Campos, 1990). 그것은 신체가 생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자기 보호적이고 도구적인 활동을 시작하도록 준비시키고(Frijda, 1986), 그리고 그것은 종의 적응과 생존에 중요한 이유로 추측된다(Lorenz, 1966).

많은 요인들이 후기 학령기 이전까지 점차적으로 공격성이 감소하는 것을 설명할지도 모른다. 언어의 발달은 아이들이 욕구의 상징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공격적인 운동-행동을 제지하는 것을 도와주는 명백한 요인이다(Kagan, Reznick & Snidman, 1990). 따라서 언어발달이 지체되는 학령기 이전 아동들은 종종 공격적인 문제행동을 보인다(Cantwell, 1975). 역학적 연구는 언어지체와 공격행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Richman 등, 1982). 즉 언어 발달은 아이들이 공격을 제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면, 언어 지체는 공격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어 또래 관계문제로 발전한다(Campbell, 1993). 정신병질이 사회적 고립과 관련한 점도 이런 발달적 특성이 한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공격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과 함께 공격의 형태와 기능면에서도 변화가 있다.

학령기 동안은, 이전 기간 동안 공격행동의 성질이 비사회적이고 도구적 특성을 가지는 것과는 달리, 공격적인 행동이 점차적으로 인간-지향적이고, 적대적이 된다. 그리고 공격을 주요하게 불러일으키는 것은 지각된 위협이나 자신의 자아나 자존감을 저하시키는 것을 포함한다(Hartup, 1983). 다른 사람이 의도적이고 적대적인 동기를 가지고 행동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지각하는 것은 점차적인 복수와 분노 반응과 통합된다(Dodge, 1993). 초기 초등학교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귀인하는 것은 분노를 일으키지만, 한편 어떤 행동들은 비의도적이라는 것도 배우게 된다.

동물행동학자는 심도 있는 패턴을 가진 자동적인 각성, 분노, 그리고 지각된 위협에 대해 광적인 공격을 이끄는 방어적 자세로 특징 지워지는 적대적-정서적 공격(반응적 공격행동)과 자동적인 활성화보다는 보상을 향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동패턴으로 특징 지워지는 도구적(순향적인/학습에 의한 공격행동) 공격을 구분하였다(Lorenz, 1966). 발달의 단계 상 잦은 공격행동의 유형은 변화를 보이는데, 반응적 공격행동은 학령기 이전에 현격하지만 초기 학령기 동안은 거짓말, 속이기, 흠치기와 같은 도구적 공격행동이 자주 나타나게 된다(Loeber & Schmalin, 1985).

많은 아동 특히 남아가 행동문제로 정신건강 클리닉에 의뢰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시기이다. Loeber와 Stouthamer-Loeber(1998)는 기질불화, 반항적, 성마름, 성냄, 논쟁적, 그리고 괴롭히는 행동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적대적 반항장애(Oppositional Defiant Disorder)의 시작과 함께 공격적 품행장애(Conduct Disorder, 이하 CD)의 발달적 곡선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4, 5세의 어린이에게는 일반적(Achenbach & Edelbrock, 1983)이지만 8세 정도가 되면 감소한다. 하지만 이 정도 시기에까

지 공격적 품행장애가 계속되는 경우 임상적인 문제가 된다(Loeber, Lahey, & Thomas, 1991).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임상적으로 의뢰된 아이들은 이러한 문제를 새로운 증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기 유아기에서 이어지는 문제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많은 적대적 반항장애 아동은 초등학교(보통 8-11세)에서 방화, 거짓말, 싸움, 무기사용, 그리고 파괴행위 등을 포함함으로써 그들의 반항적 레파토리를 다양화시킨다(Loeber, Lahey, & Thomas, 1991). 이러한 패턴의 품행장애에 대한 유병률은 미국의 경우 남자가 9%, 여자가 2% 정도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캐나다 연구 자료는 7%의 남자와 3%의 여자에게서의 유병율을 보여주었다(Offord, Boyle, & Racine, 1991). 11세와 13세 사이에서 품행장애로 진단 받은 아동은 그들의 반항적인 행동을 심지어는 강도, 깨뜨리기, 무단침입, 강요된 성 관계 등과 같은 위법 범죄행동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다양하게 발전시키기도 한다.

기질: ADHD와 신경생리학적 특성

정신병질자의 추적연구 결과 ADHD(Attention Deficit and Hyperactivity Disorder; Lina, 1996) 및 ODD/CD(Oppositional Defiant Disorder/Conduct Disorder)가 정신병질과 높은 상관을 나타내어, ADHD와 ODD/CD를 정신병질의 전조로 보고 있다. 1970년대 중반 시작된 Long Island Jewish Medical Center와 New York State psychiatric Institute가 함께 조사한 종단적 연구에서 ADHD의 16% (통제집단 3%)가 약물남용을 나타냈으며, 27%(통제집단 8%)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다(Burt et al, 2001). 또한 Satterfield(1987)은 공식체

포자와 ADHD 관계의 종단연구에서 과잉행동아 이들은 좀더 심각한 범죄로 자주 체포되었고, 일반아들보다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있는 경험이 25배나 됨을 발견했다.

또한 정신병질자와 ADHD의 생리신경학적 요소에 대한 연구는 40~50%의 아이들이 비정상 EEG(특히 느린 파장)를 나타냈다(e.g., Burt, Krueger, McGue, & Iacono, 2001).

하지만 정신병질자의 전조를 단독 ADHD를 보는 견해보다는 ADHD 및 CD를 진단받은 아이들 중 정신병질적 수준이 높은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냉담하고 비정서적 특질(Callous-Unemotional Trait, CU)과의 상관 연구(Frick, 1998)를 통해 정신병질의 복잡성을 설명한다. 또한 자율신경계의 연구를 통해 정신병질자의 탈억제적 특성(Frick, Barry, & Bodin, in press) 등으로 결합되어 확장된 형태로 나타난다. 연구결과(Frick, 1998; Frick, et al., in press)에 의하면 ADHD 만을 진단받은 아동과 CU특질이 낮은 아동들에게서는 높은 불안장애 징후가 나타났지만, ADHD와 ODD/CD의 진단과 함께 CU 특질 높은 아동에게서는 불안장애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 역시 정신병질자들은 정서관련 영역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정신병적인 징후로 나타나는 불안 등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정신병질자들의 특성을 정리한 이론적 정리(Cleckley, 19 ; Hare, 1970)를 증명해주었다. 즉 이들의 공격행동이나 범죄행위는 정서적 격분/격앙에 의한 행동이 아니며, 자기 목표를 위한 수단적/도구적 형태의 공격이며, 이를 위해 어떤 잔인한 행위도 서슴치 않을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은 정신병질자의 정서적 각성 충족을 위해 충동적으로 일어나므로 예측하기 어렵고, 그런 행동에 대한 조금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어떠한 가혹적인 행동에도 동요가 없다.

위와 같은 행동특성 및 신경생리학적 이상 외에도 정신병질자의 기질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어린시절을 유추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학자들은 그들이 출생 시 산소결핍이 심했거나, RAS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고 가족(부모 대립, 무관심, 학대나 유기)과 사회적인 어려움(Marshall과 Cooke, 1999)을 가정하였다. Gray & Hutchison (1964)에 의하면 캐나다 정신평가팀에 의하면 유죄 판결받은 12.7%가 8세 이전에 정신병질자로 진단 받을 수 있고, 다른 66%는 18세 이전에 분류될 수 있다고 하였고, 30세 이전의 성인범 95%가 어린시절에 정신병질적 행동이 나타났음이 증명되기도 하였다.

유전적 소양

대부분의 성격특성들은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¹⁴⁾ 반사회적 행동도 마찬가지이다. 반사회적 행동이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다는 증거는 쌍생아 연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성격에 대한 쌍생아 연구를 보면¹⁵⁾ MMPI 척도 중 Pd(반사회적 성격특성)와 여러 공격성 척도를 이용해 조사한 결과 일란성 쌍생아는 일치율이 .46에서 .57인 반면 이란성 쌍생아는 .18에서 .28인 것으로 나타났다(Goldsmith & Gottesman, 1996). 나아가 MPQ(Mult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따로 떨어져 자란 쌍생아와 같이 자란 쌍생아를 비교한 결과

따로 떨어져 자란 쌍생아는 일치율이 .46이었고 같이 자란 쌍생아는 .43이었다(Tellegen, Lykken, Bouchard, Wilcox, Segal, & Rich, 1988). 또 다른 연구(Loeber, 1990)에서는 MMPI의 Pd 척도로 친모와 자녀 간 일치율과 양모와 자녀 간 일치율, 그리고 같이 자랐으나 부모가 다른 형제간 일치율을 보았는데 친모와 자녀 간 일치율은 .27인 반면 양모와 자녀 간 일치율은 .10이었으며 같이 자랐으나 부모가 다른 형제간에는 .02의 일치율을 보였다. 이 연구들을 통해 보면 성격이 전적으로 유전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유전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는 있다.

정상군의 성격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반사회적 성격장애군에 대한 일치율을 보면 미국, 유럽, 일본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일란성 쌍생아의 경우 52%의 일치율을 보인 반면 이란성 쌍생아의 경우에는 23%의 일치율을 보였으며, Cloninger와 Gottesman(1987)의 연구에서도 유전자의 영향이 54%정도였고 유전자 영향을 뺀 나머지 환경의 영향이 20%가량 되었다.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일치율에 있어서도 Eysenck(1977)의 연구에서는 일란성 쌍생아는 55%가 일치한 반면, 이란성 쌍생아는 13%의 일치율을 보였으며, Cloninger 등 (Cloninger, Sivadsson, Bohman, & Von Knorring, 1982)의 연구에서도 쌍생아의 경우 .70의 일치율을 보인 반면, 이란성 쌍생아는 .28의 일치율을 보였다.

이런 연구들은 반사회적 행동이 유전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15세 이하 품행장애에 대한 연구를 보면 15세 이하의 경우 유전의 영향보다는 공통 환경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영국에서 시행한 13세 쌍생아 연구를 보면 유전적 요소는 신경증에 영향을 미쳤으나 반사회적 증후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McGuffin과 Thapar의 최근 연구(1997)에서도 공통

14) 이러한 예는 IQ 검사 점수, 성격검사상 성격, 정신분열증, 성격장애 등을 들 수 있다.

15) 표현형 즉, 성격차원(가령 외향성이나 신경증)은 유전자형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데 일란성 쌍생아의 경우 유전자와 공통환경을 100% 공유하나 이란성 쌍생아는 유전자와 공통환경을 50%만 공유한다. 그러므로 두 집단을 비교해 보면 환경의 영향이 큰지 유전의 영향이 큰지 알 수 있다.

환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밝혀졌다.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나이가 조금 더 들면 유전적 영향이 나타나 일란성 쌍생아의 경우 일치율이 81%에 이르지만 이란성 쌍생아는 일치율이 29%에 머물렀다는 사실이었다. CBCL을 이용한 또다른 연구(Lyon, True, Einsen, Goldberg, Meyer, Farazone, Eaves, & Tsuang, 1995)에서 공격행동은 유전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비행은 공통 환경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불일치한 결과에 대하여 Lyon 등(1995)은 청소년기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에 있어서는 환경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성인기로 접어들게 되면 유전적으로 소인이 있는 사람들은 점점 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교차 양육연구에서는 유전의 영향 뿐 아니라 환경의 영향도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여 준다. 친부모가 범죄자이고 양부모가 범죄자가 아닌 입양아의 경우 20%가 범죄를 저지른 반면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범죄자인 입양아의 경우 24.5%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Cloninger 등(1982)의 연구에 따르면 유전적 후천적 요인 모두 범죄의 소인이 될 수 있으나 유전적 특성에 따라 환경을 조정하면 낮은 SES 등 여러 위험요소의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Mednick, Gabrielli와 Hutchings(1984)의 연구에서는 친부모가 범죄자인 경우 이들의 자녀가 입양되더라도 부모 자식 간의 범죄 일치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입양한 부모도 범죄자인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더 높이 나타났으나 건전한 양부모에게 입양된 경우에는 입양아의 75%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유전적 소인 이외에 환경요인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환경요인에는 유년기 환경, 낮은 SES, 불안정한 입양, 수용기관

체류기간, 도시입양, 양부모의 정신질환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부모결핍

정신병질자들과 부모결핍은 상당한 상관성이 나타난다. 이들은 초기 가족환경의 실패로 무엇이 정확하게 “잘못된 것”인지를 해석하는 것의 학습에 실패한다. 신경증 집단의 387중 28%와 일반인 691 중의 27% 대비하여 정신병질자로 분류된 29명중 60%가 부모를 상실했다.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상실은 남자 정신병질자에게서 보다 여자 정신병질자에게 의미있게 나타났으며 그들은 주로 5세 전에 부모를 잃었고, 양쪽 부모상실이 좀더 많이 나타났다(Greer, 1964).

Oltman과 Friedman(1967)은 양쪽 부모의 영향력 중 엄마보다는 아빠의 상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Craft, Stephenson 과 Granger(1964)는 심각한 정신병질적 행동은 각자의 배경 하에서의 부모상실과 연관이 있어 보임을 발견했다. Buss(1961)는 ‘아이에게 거리감을 두고 냉정하게 대하는 부모’와 ‘훈육, 보상과 처벌에 일관성이 없고 변덕스러운 부모’의 두 가지 부모행동 유형이 정신병질 성향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부모아래서 양육된 자녀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학습 대신, 거짓말이나 속이는 의미들을 사용하여 비난이나 처벌을 피하는 방법을 학습하여 “옳고 그름에 대한 학습”은 실패한다.

McCord와 McCord(1964, p. 87)는 ‘극도의 정서적 박탈이나 심리적 거부’ 등이 다른 ‘환경적인 조건’이나 ‘초기의 신경적 손상’과 결합이 되었을 때 정신병질 발달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극도의 정서적 박탈이 일부 정신병질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만 신경계의 원천적인 기능결함의 가능성을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그리고 모든 정신병질자는 어느 정도의 거부를 경험한다.

또한 Hare와 그의 동료들(1992)은 정신병질로 들어섰을 때 약하거나 지속되지는 않지만 가족의 기능결함이 나타났음을 발견하고, Phares(1972)는 응석을 받아주거나 지나치게 방임적인 부모들에게서 어려서부터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닌 부모에게 아양을 떨거나 변덕을 맞춰 위기를 모면하는 행동패턴을 학습'하게 된다고 정리하였다. 이렇게 적절한 모델의 결여, 부모의 부재 등 전반적으로 불분명한 부모반응은 정신병질성향을 더욱 부추이게 되는 것이다.

반면 ADHD 진단을 받은 아동일지라도 부모의 적절한 양육을 통해 아이가 효과적인 성장이 가능함을 반증해주고, 더욱이 부모의 일반적인 양육양태와 더불어 아버지가 정신병질 혹은 알콜중독자였던 사람들보다 위와 같은 부모 양육양태가 정신병질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Robins, 1966) 부모양육이 정신병질의 발현과 관련되어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으로 인한 행동습관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가족의 영향은 정신분석가들의 치료사례를 통해 설명된 적이 있고, 이런 관점에서는 정신병질이 주로 초기 유년기 발달에 결손이 있는 경우 나타난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역기능적 가족특성과 잘못된 양육방식으로 인해 반사회적 행동습관이 형성된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요소를 보면 부모가 적대적이고 거부적이면서 권위적이지만 자녀에게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 양육태도를 보이면 공격성이 촉진되고, 이는 청소년기의 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Olweus, 1978). 또한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혐오하지만 비일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도 비행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았다(Dumas, Gibson, & Albin, 1989). 학대를 받은 경험의 경우, 학대경험이 비행행동과 관련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모가 알콜중독인가의 여부나 알콜중독과 신체학대의 상호작용은 반사회적 행동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ollock, Briere, Schneider, Knop, Mednick, & Goodwin, 1990).

반사회적 행동을 촉진하는 학습과정과 그로 인해 습득된 행동패턴이 반사회적 공격행동을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Robins, 1978). 품행장애였던 아동의 40%가 성인기에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진단받았으며,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의 횟수나 심각도가 아동기의 기질적 특성이나 가족변인보다도 성인기 반사회적 행동을 더 잘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Farrington과 West(1990)의 연구에서도 411 명의 남자를 대상으로 연령이 8세 - 10세 - 14세 때 그리고 16세 - 18세 - 21세 때, 25세 - 32세 때 면접을 실시한 결과 아동기의 문제행동 및 이탈행동이 반사회적 범죄를 가장 잘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기 학습 및 행동요인이 이후 반사회적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요인인데, 이런 요인들을 보면 부모의 양육기술(Loeber & Dishion, 1983), 부모의 감시, 태도, 간섭(Loeber, 1990), 환경적 어려움, 유전 특징, 가족모델링, 심리사회적 스트레스(Robins, 1981)등이 유관요인이었다. 이외에 아동기 품행장애에 애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Cooke, 1998)가 있는데 이 연구결과를 보면 애착은 단순히 심리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질적인 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

앞에서 유럽과 미국의 정신병질에 대한 진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 간에는 진단체계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하는데, 각 문화권에서 진단 내리는 구인은 과연 서로 같은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렇다면 유병율에서는 그 양상에 차이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대두된다. 영국과 미국에서 정신병질로 판명된 307명의 죄수를 대상으로 PCL-R을 가지고 연구한 Cooke(1998)의 연구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의 경우 정신병질이 3%, 경미한 정신병질이 15%였던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정신병질이 28%, 경미한 정신병질이 44%인 것으로 나타났다¹⁶⁾. 이는 두 문화권에서 측정한 정신병질이 동일한 구인을 측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비율을 나타내 정신병질을 보이는 데는 문화 간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을 시사하여 준다. 즉 기본적인 기질과 사회 환경은 필연적으로 상호작용할 것이데(Paris, 1993; Lykken, 1995), 이는 문화권에 따라서 아동이 공격행동을 표출하도록 하는 문화인가 아니면 억제하도록 하는 문화인가 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회문화적 차이가 궁극적으로 정신병질의 유병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Ekblad, 1988).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일단 정리해 보면, 우선 유전은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신경계 장애를 야기하는 임신기나 출생시 합병증도 공격행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 보다 구체적으로 안와 전두피질은 폭력성의 조절에 관련되어 있으며 세로토닌계에 이상이 생겨도 충동적 폭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정신병질자들이 보이는 자극추구 경향이나 위험추구 경향은 노아아드레날린계 이상이나 혈

소판에서 MAO의 저하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또 어렸을 때의 학습에 의한 행동습관들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부모의 양육기술이나 부모의 감시, 태도 간섭 등은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또 각 문화별로 반사회적 행동을 표현하는 데 얼마나 관대하느냐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자면 비교적 감정표현이 억압적인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우 서구 사회에서보다 정신병질의 발생율이 낮지 않을까 의심해보게 한다. 종합해 보면 반사회적 행동이 나타나는 데는 유전적 요인이나 기질적 요인이 선행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여기에 환경이 작용하여 반사회적 행동이 드러나게 하기도 하고 안드러나게 하기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반사회적 행동의 잠재적인 특성으로서 정신병질은 이같이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형성이 될 수 있음을 짐작하여 보게 한다.

정신병질자들의 행동특성

‘평생 지속적인 비행자’라고 불리우는 정신병질자는 기존의 범죄자에 대한 통념을 바꾸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타인에게 친근하고 외향적이며, 호감이 가며 기민해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고, 그들은 종종 좋은 교육을 받고 아는 것이 많으며, 많은 것에 흥미를 나타내는 등 사회적 상호작용을 잘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런 것은 전부 피상적이며 사실상 별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Hare(1996, p. 45)는 “정신병질자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언어적으로는 표현할 수 있으나 감정적으로는 매우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¹⁷⁾ 하지만 이들은 심각하거나 혹은 경미한 정신장애도 없고 걱정, 불안, 망상, 우

16) Cooke에 따르면 PCL-R로 양 문화권의 정신병질자를 측정한 결과 서로 같은 구인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정신병질에 대한 Hare(1991)와 Cleckley(1976)의 정의

Hare의 정의	Cleckley의 정의
말주변이 좋음. 피상적인 매력	피상적인 매력과 좋은 지능
자기가치에 대해 과장하는 경향성	병적인 자기중심성
병적인 거짓말	비진실성과 위선
연민이나 죄책감의 부족	교묘한 속임수
피상적인 감정	연민이나 죄책감의 부족
냉담, 無情한 경향과 공감능력의 부족	감정 반응에 대해 일반적으로 빈곤함
행동 책임감 수용의 실패	대인간 관계에서의 둔감함(동정심결여)
난잡한 성적 행동	신뢰할 수 없음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목표 결여	비인격인 성생활
빈약한 행동 조절력	Failure to follow any life span
높은 자극추구/지루해 하는 경향성	충동성
무책임	부적절하게 동기화된 반사회적 행동
	빈약한 판단력
	망상 및 신경적 증상의 부재
	자살을 매우 낮음

을, 환각상태의 징후 역시 없다. 따라서 이들은 정신분열 등의 정신질환군으로 분류할 어떤 임상적 증상도 찾아보기 힘든 매우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주된 특질은 이기심과 사랑할 능력이거나 타인에 대한 이타심의 부재,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 등의 부재이다. Cleckley(1976)에 의하면 자기중심성은 정신병질자에게서 항상 나타나며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은 깊은 정서상태인 척 가장하는 기술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고, 효과적으로 적절한 정서를 흉내낼 수는 있지만 진실한 충심, 따뜻함과 열정은 그들에게

는 낮은 것이며, 그들은 정직한 척 보이게 하는 교활한 능력을 갖고는 있지만 사실상 알맹이가 없다고 한다. 만약 그들이 도움행동을 했다거나 타인을 이해하는 반응을 보였다면, 그것은 다른 목표를 위한 일시적인 후퇴에 지나지 않을 뿐, 사실상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능력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심지어 그들은 범죄행동을 일종의 'Game'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Hare, 1991). 표 1에는 정신병질에 대한 Cleckley(1976)와 Hare(1991)의 정의가 정리되어 있다.

공격성

17) Cleckley는 성격을 "semantic aphasia(의미 실어증)"이라고 불렀으며, John과 Quay(1962)는 정신병질자가 "words를 알고 있으나, music은 알지 못한다"고 말하였고, 유사하게 Grant(1977)는 정신병질자가 단어의 교과서적인 의미를 알 뿐, 함축된 의미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Hare 등(1991)은 공격행동의 지표상에서 자신의 기준으로 선정된 정신병질자들이 비정신병질적 수형자들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들은 심각한 범죄, 폭력이나 모든 사회에서 오는 사회적인 스트레스들을 책임지는 것에서 현저한 불균형상태를 나타내고(Hare, 1996, p. 26), 특별히 유죄 판결을 받은 강간범, 연쇄강간범이나 그들의 피해자를 죽인 강간범들 중 35%에서 43%의 높은 비율이 정신병질자였다”고 보고하였다.

1950년대 후반 및 초기 1960년대의 많은 연구들은 공격성이 높은 개인들이 수면 중 뇌파활동이 다름을 발견하였는데(Niedermeyer, 1963; Kurland, Yeager, & Arthur, 1963), 수면 중에 발견되는 느린 파장의 뇌파는 공격적인 재소자의 66%에서 측두엽에 국재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개인들은 통제 불가능한 폭력적 과거력을 가지고 있었다. Hare(1970)는 이런 신경학적 기질적 특성이 정신병질자들을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잔인한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원인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의 이러한 지적은 그 이후 정신병질에 대한 연구의 방향을 주도하게 되어 정신병질적 성격을 지닌 자들은 행동특성 상에서 신경생리학적 반응이 매우 고유하다는 여러 연구결과들을 도출하게 하였다.

학습과 수행

정신병질과 관련된 이론은 이들이 일반적으로 학습에 결함이 있을 것임을 추정하게 한다. 예컨대 충동적 경향이나 보상의 지연에 대한 태도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학습의 기본 원리인 조건형성의 획득을 어렵게 만들 것이란 것이다. 이런 특성을 빗대어 Eysenck(1964)는 정신병질자를 학습에 대한 소거가 아주 빨리 일어나는 기

역력이 나쁜 학습자라고 하였고, Cleckley(1982)는 경험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도 하였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수행된 연구들은 정신병질자들이 언어적 조건화, 고전적 조건화, 자율신경계 반응의 조절, 수용 회피 학습 등에서 열등하며 사회학습, 학습상황, 사회적인 강화를 이용하는 언어적 조건화, 벌이 존재하는 상황 내 학습, 짝짓기, 연상 언어학습 등에서 무력한 수행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신병질자들이 항상 회피학습에서 결함을 보이는 것은 아니어서 이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시 연구가 진행되었다. Painting(1961)의 연구에서는 잘못된 반응으로 답배를 빼앗기는 상황에서는 정신병질자들이 통제집단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Schrank(1970)의 연구에서는 정신병질자들이 전기충격이나 부정적인 사회적 비평을 듣는 것보다 돈을 잃게 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수행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정신병질자들은 처벌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 가장 학습이 저조하였고(Siegel, 1978), 부분 보상조건에서는 수행을 상대적으로 더 잘 했다(Fairweather, 1954). 이 연구들로 정리되는 내용은 처벌은 정신병질자들에게 별로 효과가 없으나 본인이 매력을 느끼는 강화에 대해서는 비교적 학습이 잘 일어난다는 것이다.

정신병질자들의 수행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는 자극과 반응의 시간 간격이다. 자극과 보상 간에 시간이 짧은 보상조건에서는 정신병질자들이 통제집단보다 뛰어난 수행을 보이지만 간격이 길어질수록 수행이 떨어졌으며(Painting, 1961) 짝짓기 연상학습에서 정보제공이 지연됨에 따라 수행속도가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다(Gullick, Sutker, Adams, 1976). 또 Newman, Widson과 Nathan(1985)의 연구에서는 정신병질자

들은 보상만 주어지는 과제에서보다 보상 처벌이 둘 다 있는 과제에서 일반 피학생자들보다 수동·회피 오류를 더 많이 범하는 경향이 있었음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정신병질자들에게 처벌은 학습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기존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처벌 대신 다른 변인들 즉, 강화의 종류, 강화 간격, 보상 가능성 등을 이용하면 학습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충동성과 자극추구

정신병질자들의 특성 중 하나가 자극을 추구하고 지루함을 못견디며 만족지연을 못한다는 점인데, 이 현상에 대해 초기의 동기이론은 유기체는 자극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려는 동기에 의해 움직이므로 정신병질자도 마찬가지로 자극 추구 동기로 인해 행동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Quay(1965)는 이에 대해 정신병질자들의 반응 순응성은 비교적 빨라서 주의력 결핍(ADHD) 장애 아들처럼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자극을 추구해야 한다고 해명한다.

다른 연구자들(Sutker, Archer, & Allain, 1978)은 만성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남녀 가운데 높은 수준의 감각 추구자들과 낮은 수준의 감각 추구자들을 비교하였다. 전자 집단이 후자 집단에 비하여 MMPI 프로파일 상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반사회성, 충동성, 내향성을 보였다. 나아가 자기보고 행동에서도 위 결과와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감각추구자들은 낮은 감각추구자보다도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가 이르며 음주도 쾌감 충족을 위해 시작했다고 보고하였다¹⁸⁾.

18) 반면 낮은 수준의 감각 추구자들은 동료집단의 압력으로 처음 음주를 시작했다고 한다.

Demyer-Gapin 과 Scott(1977)은 반사회성을 보이는 아동들은 신경증으로 분류된 아동들에 비해 지루한 일보다는 자극이 되는 일에 더 관심을 보였으며, 실험 중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Widom(1976)은 정신병질자 가운데 일차 성인 정신병질자들¹⁹⁾은 정상인과 유사하게 단조로움을 잘 견뎠으나 이차 혹은 신경증적 정신병질자들은 지루함을 견디는데 어려움을 보임을 발견하였다. 이런 실험과는 달리 Maher(1966)가 수행한 연구에서는 자극추구 욕구와 결부된 만족지연능력의 결여가 충동적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입증하는 데에 실패하였다. 나아가 Sutker, Moan,과 Swanson(1972)는 정신병질자들이 정상집단에 비해 질적으로 더 나은 수행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런 상충된 연구의 결과는 종속측정치로 무엇을 측정하느냐, 만족의 지연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또한 개인의 학습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연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신병질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들은 일반적으로 적은 양의 즉각적인 강화물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지연된 많은 양의 강화물을 선택하는가는 일관되게 MMPI의 Pd 척도의 영향을 받으며(Widom, 1977), 신경증적 정신병질자들은 일반적으로 조급하고 충동적인 경향을 보인다.

정신병질자의 또 다른 두드러진 특성 중의 하나는 책임감이 없으며, 상황적 중요성이나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한 고려가 없는 충동성이다(Hare & Dempster, 1997). 정신병질자들은 일반적으로 평균 이상의 지능을 지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범법을 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지능이 비록 평균 이상일지라도 실패 및 회

19) primary adult psychopaths

피해습의 능력이 없기에 충동적인 유혹에 취약할 수 있다. 그들의 이런 특성은 전문적인 범죄자들과는 구별이 되는데, 즉 전문적인 범죄자는 목적이 명확하고 행동의 계획을 가지고 범죄를 행하는 반면 이들은 이런 장기간의 목표설정이 부족하며,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 심각한 범죄에 참여하는 등 충동적 행동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결국, 정신병질자의 행동은 스틸과 흥미에 대한 지나친 신경심리학적 욕구에 의해 동기화 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Quay, 1965).

대인관계 패턴

정신병질의 개념에 대하여서는 전통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이것을 중심으로 정신병질자의 대인관계 경향을 보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비추어보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타인의 대인관계 역할을 생각하지 못하고(Gough, 1948), 타인의 고통에 대해 피상적 관심은 보이나 실제로는 무관심하며(Cleckley, 1982), 사회적으로 애착을 형성하며 사랑하는 능력이 부족하고(McCord, & McCord, 1964),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겪는 고통에 관심이 없고 도덕률의 개념이 없다(Gorenstein, & Newman, 1980)고 한다.

Sutker(1970)는 정신병질자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분명하고 즉각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응적이기에 직접적인 사회적 평가가 이들의 행동을 수정하는데 강화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Widom(1976b)은 또한 보상이 충분하고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주어진다면 정신병질자들은 잠시 동안이나마 타인들과 협동할 수 있음을 알아내었다.

녹화된 면접 자료를 통해 12세에서 20세까지의 남자 정신병질자의 언어적/비언어적 대인행동

에 대해 조사한 Rime, Boury, Rebongne와 Rouillon (1978)의 연구를 보면 통제집단에 비해 정신병질자들은 면접 중에 손동작을 자주 하고 면접자 쪽으로 몸을 자주 기울였으며 눈 맞춤을 더 오래 유지하며 미소를 별로 짓지 않았다. 이렇게 비언어적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것은 사회 기술과 사회적 자각능력이 부적절한 결과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Widom(1976a)은 정신병질자와 정상인들의 대인 인지구조와 개인 인지구조 체계를 비교했는데 정신병질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다르게 사건을 해석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신의 고정된 인지구조를 수정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그 이외 연구들에서도 정신병질자들은 대인관계에서 위협적인 상황에 대해 인지적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Blackburn, & Lee-Evans, 1985), 정상인에 비해 불안이나 화가 나는 상황을 실제보다 더 많이 화를 유발하는 상황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terling, & Edelman, 1988).

인지적 결함과 전두엽 기능장애

전두엽 기능장애와 반사회적 성격이 유관하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온 것은 전뇌에 이상이 생기면 허위 정신병질적(pseudopsychopathic)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증거들 때문이었다. 전두엽이 손상된 환자들의 경우에는 즉각적인 충동 만족을 위한 지연 행동 장애가 생기며, 사회 예절을 생각하지 못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거짓말을 하고, 신뢰롭지 못한, 충동적이고도 반사회적 행동을 야기한다.

정신병질자들이 보이는 인지적 특성을 보면 이들은 자극에 초점을 두고 이와 관련 없는 정보는 배제시킨다. 과제(전자게임)를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횟수를 측정한

Jurati와 Hare(1983)의 연구에서는 과제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자극에 반응하는데 통제집단과 차이가 없었으나 과제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극에 반응하는 횟수가 통제집단보다 떨어졌다. Schalling(1978)은 주의조절, 정서적 민감성, 행동 지속능력과 관련된 전두엽 기능 이상이 정신병질 유발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연구들에서도 전두엽의 기능장애가 범죄, 비행, 우울, 그리고 폭력 증상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 가운데 정신병질자들의 인지특성이 가장 뚜렷이 드러난 연구는 Gorenstein(1982)의 연구인데 여기서는 43명의 남자 정신병 환자와 18명의 대학생들을 정신병질적 집단과 비정신병질적 집단으로 나누어 Necker Cube 검사, Wisconsin 카드 분류검사(WCST), 연속 짝짓기 기억검사(SMMT), Stroop 검사, 철자 바꾸기 검사 등의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신병질자들은 Necker Cube 검사에서 자발적인 반전(reversal)을 많이 보였고 SMMT에서 실수를 더 많이 하였으며, WCST에서 규칙에 고집하는 실수를 더 많이 보였다. 이 결과로 Gorenstein은 정신병질자들이 전두엽 기능과 관련된 인지과정 결함이 있으며, 우세반응 체계에 대한 조절능력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단순한 인지능력의 결핍으로 정신병질적 특성을 정의하지 않는 Hare(1984)는 Gorenstein(1982)의 연구를 비판하였다. 그는 Gorenstein 연구에서 정신병질 집단을 단순히 구성원들의 소속으로 나눈 것을 비판하면서, 범죄자 집단과 일반 대학생들의 수행의 차는 연령, 교육, 지능, 물질남용과 대학생 신분 등의 요인에 의해서 야기된 것일 수도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2문항의 정신병질 목록(PCL-R)을 사용해서 백인 수감자들을 정신병질 정도에 따라서 높은 수준, 중간 수준, 낮은 수준의 세 집

단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이 세 집단간에 지능, 연령, 학력 등의 요인이나 CPI의 Ss점수, 인지검사 수행정도가 차이가 나지 않아 정신병질자의 행동이 인지능력의 결손이 주로 보고되는 전두엽 환자와는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다. Sutker 등(1987)도 Gorenstein의 실험과 집단구성원이 유사한 모집단으로부터 19명의 정신병질자와 15명의 정상인을 선발하여 WCST, 시각언어검사, Porteus 미로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정신병질자들은 계획 세우기, 유통성, 주의, 통제 및 추상화 등의 전두엽 이상과 관련된 인지적 수행에서 통제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전두엽 이상 환자와 정신병질자의 행동 및 신경심리 측면에서 유사할 것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Devonshire, Howard, & Sellars(1988)은 Gorenstein과 Hare가 일차성 정신병질자와 신경증적 불안으로 특징 지워지는 이차성 정신병질자를 구분하는데 소홀했다고 비판하였다. 연구자들은 정신병질자를 대상으로 WCST를 실시한 결과, 일차성과 이차성으로 나누지 않았을 때는 정신병질자로 진단받은 이들 간에는 수행차가 없었고, 정신병질 정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간에도 수행차가 없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일차성 정신병질자와 이차성 정신병질자로 나누었을 때는 일차성 정신병질 집단이 이차성 정신병질 집단에 비해 더 나은 수행을 보였다. 이것은 정신병질과 무관하게 불안하고 사회적으로 격리된 이차적 정신병질자들이 위협을 과대평가한 결과 인지수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였다. Devonshire는 Gorenstein과 Hare의 연구의 차이는 비일관적인 표본선택 때문이며 Hare의 연구에서 전두엽 이상의 결과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Hare의 분류목록으로는 일차성 정신병질과 이차성

정신병질자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런 결과에 대하여 Kandal과 Freed(1989)는 반사회적 성격장애들의 전두엽 기능장애를 평가하는 것은 복잡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현존하는 증거들은 정신병질자의 전두엽 기능장애를 확정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한다고 정리하였다. 따라서 정신병질자는 전두엽과 측두엽의 기능에 변화가 있기는 하나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들을 정리해볼 때 지적 기능이나 신경심리학적 기능은 정상적인 수행을 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정상 수준의 인지능력과 달리 감정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정신병질자들의 특성은 보다 극명하다. 감정단어는 좌반구보다는 우반구에서 우세하게 처리가 되는데 정신병질자들은 우반구에서 감정단어를 처리하는 데에 일관되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기능이 좌반구에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Cleckley(1976)의 연구에 따르면 정신병질자들은 감정단어를 처리하지 못하였고, 다른 실험에서도 주의와 기억 수준에서 감정에 대한 반응이 빠르지 못하였다. 관련된 실험을 보면 정신병질자가 아닌 범죄자나 일반 집단은 감정단어 목록이나 중립단어 목록을 처리할 때 대뇌 혈액 흐름에 별 변화가 없었으나 정신병질자들은 감정 단어 목록을 처리할 때 대뇌 혈류량이 증가하였다. 이런 실험들은 정신병질자들이 감정과 관련된 단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전두엽의 일시적 기능 변화가 정서와 관련된 단어 처리 장애의 기저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신병질자들의 정서자극에 대한 각성수준을 연구한 실험들은 이런 차이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각성 수준과 반응성

기능장애 및 정서와 행동 통제의 문제를 각성 이론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상당히 많았다. Lykken(1957)은 정신병질자들이 경고신호에 대해 공포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늦고, 정상인이라면 당연히 회피하는 전기충격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포반응을 경험해도 영향을 덜 받는다고 결론지었다. Quay(1965)와 Eynsienck(1964)는 정신병질자들은 행동을 일으키는 자극에 대해 각성 수준이 낮으며, 빨리 익숙해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로 인한 불안, 수치심과 공포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정신병질자들의 각성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실험이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정신병질자들이 정상인에 비해 심장혈관의 활동치가 유의미하게 달리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는 별로 없었지만 피부전도도에 대한 연구결과는 긍정적이어서 정신병질자들의 휴지수준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낮은 각성수준 가설에 근거하여 중립적 음성 자극에 피부전도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반되는 결과들이 나타나 저활동 가설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조 Patrick, Cuthbert, & Larry, 1994).

하지만 이렇게 상반된 연구의 결과에 대하여 Mawson과 Mawson(1977)은 정신병질자들이 보이는 심리생리적 행동적 양식을 설명하는 신경화학적 모델을 제안하면서 각성수준이 일률적으로 높고 낮음보다는 각성 경향에 있어 다른 사람보다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가능한 점으로 정신병질자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신병질자의 피부전도 활동이 감소된다는 연구들과 달리 정신병질자들이 오히려 통제집단에 비해 위협자극에 대해 더 많은 심장박동율을 보인다는 연구결과(Hare & Craigen, 1974)도 있는데, Hare(1978)는 정신병질자들이 상황 상 위협단서를

피할 수 없을 때는 심장박동률이 증가하며 상황에 대처하지만 즉각적인 만족을 얻거나 위협단서를 무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심장박동률이 낮아진다고 정리하였다.

최근 Levenston과 Patrick(2000)은 정신병질자들의 비정상적인 자극에 대한 조절반응을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정신병질자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의 불쾌 정서자극에 대한 반응이 정상수준에서 많이 일탈된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정신병질자의 임상 징후의 핵심은 감정적 둔마라는 Cleckley(1976)와 Hare(1991)의 주장을 입증해주는 결과이다. 비정신병질적 성범죄자와는 달리 정신병질적 성범죄자는 일반인들은 회피반응을 보이는 끔찍한 그림을 보는 동안 여러 가지 자율신경계 반응(눈 깜박거림) 상에서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였다(Patrick, Bradley & Lang, 1993).

그림 2과 그림 3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일반인들은 아주 불유쾌한 정서자극을 보게 되면 방

적인 반응, 즉 별반 회피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불수의적 반응의 저하는 심박율에서는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4)..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하자면 정신병질적 특성을 지닌 사람들은 심장박동율을 주로 탐색하는 거짓말탐지기법²⁰⁾에서는 '진실반응'의 결과에 혼선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 짐작해볼 수 있다. 하지만 심박율을 제외한 피부전도반사 등의 다른 불수의적 반응에서는 정신병질자들의 반응특성이 일관성 있게 보고 되고 있다 (Patrick, Bradley, & Lang, 1993; Davis, 1979, 1986; Patrick, Berthot, & Moore, 1996; Fanselow, 1994; LeDoux, 1995; Cuthbert, Bradley, & Lang, 1996). 이에 대해 Levenston과 Patrick(2000)은 정신병질자들은 전두엽 기능의 조절기능에 이상을 보이는 것이지 원천적으로 자극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BIS (Behavioral Inhibition System, Gray, 1982a, 1982b) 체계에서의 손상징후를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지금까지 발견된 정신병질자들의 행동특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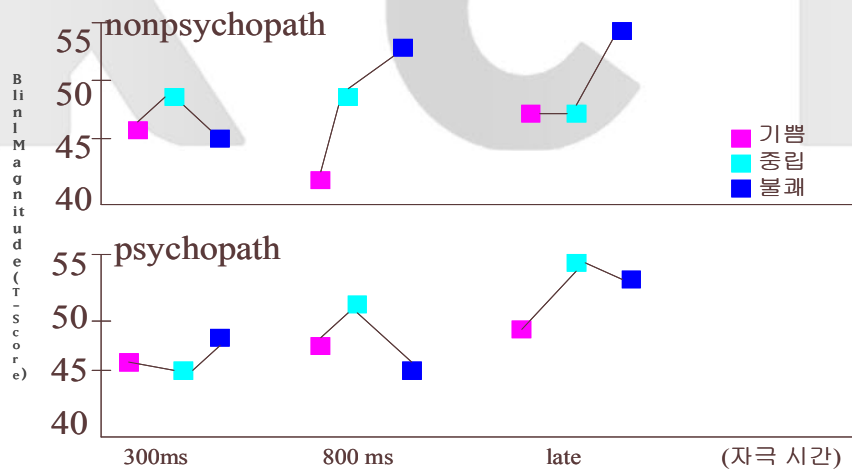


그림 2. 기쁨-중립-불쾌 자극 제시에 따른 Blink Magnitude
어적인 반응, 즉 억제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정신 간혹 일치되지 않는 결과가 산출되기도 하였으
병질자들은 이런 자극적인 그림에 대해 탈억제

20) 거짓말탐지기법에서 사용하는 생리현상: 호흡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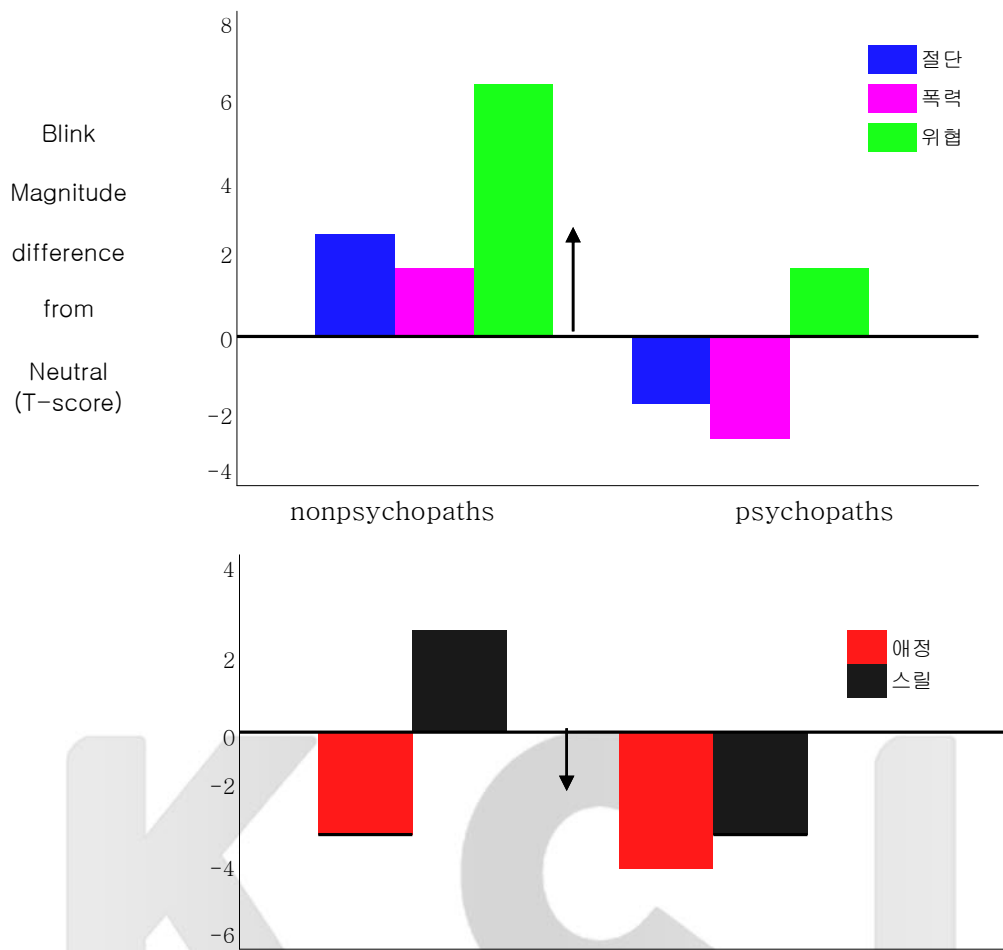


그림 3. 중립자극에서의 Blink Magnitude 차이 (T-score)

나 전체의 흐름을 대충 정리하여보면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정신병질적 성격을 지닌 위험군의 경우에는 비교적 공격성이나 충동성 수준이 일반 전과자들보다는 더 높는데, 이와 같은 특성은 그들의 신경생리적 특질과 유관하다. 전두엽의 기능장애로 일컬어지는 조절장애는 원래 그들의 자극에 대한 반응기제의 문제로부터 발

생될 가능성이 농후한 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비정상적인 정서반응 수준을 지니고 있다. 일반인들은 쉽게 각성하고 조속히 회피반응을 보이는 충격적인 자극들에 대하여 이들은 비교적 둔감하며 반응적이지 못한다. 이와 같은 그들의 반응경향성이 그들의 극단적인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상대방의 비명이 적절한 동요를 야기하면 본인의 행위가 타인에게 피해를 줄

(Respiratory Activity), 피부전기활동(Electrodermal Activity), 심박활동(Cardio Activ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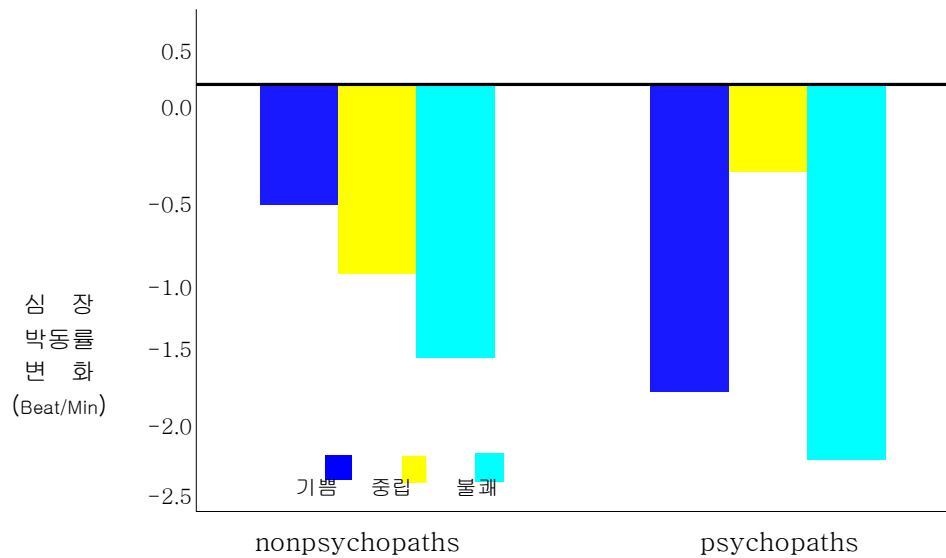


그림 4. 기쁨-중립-불쾌 감정에 대한 심박률 차이

깨닫고 원인행위를 멈추는 것이 일반인들의 일반적인 행태이나 이 같은 메커니즘이 정신병질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자극에 대한 반응수준이 매우 둔감하여 굳이 조절의 필요성조차 느끼지를 못하는 데에 잔인성의 원천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신병질의 평가와 재범예측

정신병질 평가도구 소개

최초로 정신병질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정의를 내린 Cleckly(1976)에 따르면 이들은 외관상으로는 상당히 정상적으로 보이고 지능도 보통 이상의 수준을 지니고 있지만, 극단적으로 이기적이며 타인을 자신의 목적 달성의 도구로서 이용하여 무책임하면서 냉담하고 쉽게 거짓말을 하는 특성을 지닌다고 한다. Hare(1980)는 이런

특성들을 계량적으로 측정해낼 수 있는 22문항 짜리 도구를 최초로 개발하였고 후에 두 항목을 줄여 20문항짜리 단축형 도구, PCL-R(Hare, 1991)을 만들어 현장 적용에 편의를 도모하였다(표 2). 형사정책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이 평가도구는 전과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반구조화된 인터뷰 기법으로, 20개의 항목들에 대하여 0점에서 2점까지의 점수를 주도록 고안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 척도에서 30점 이상을 기록하면 정신병질로 구분된다.

최근의 연구들(Hare, 1996; Hare, Forth, Stachan, 1992)은 전체 인구의 약 1%, 그리고 수용되어 있는 범죄자들의 약 15%에서 25% 정도가 이 범주에 해당되며 이들의 재범가능성은 그 어떤 범죄 집단보다도 더 높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범죄자들 중 재범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정신병질자 집단의 신경심리적, 인지행동적 특성은 상당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관찰되어 왔다(Kosson, Suchy, Mayer, & Libby,

2002; Patrick, Bradley, & Lang, 1993; Patrick 등 1994; Sutton, Vitale, & Newman, 2002). 이런 결과 PCL-R 이외에도 정신병질을 측정하는 법정 평가도구들은 최근 여러 개가 출판되었다. 이 중

표 2. 정신병질 평가도구

HCR-20 (Webster, Douglas, Eaves, & Hart, 1997)		PCL-R (Hare, 1991)		VRAG (Quinsey, Harris, Rice, & Cormier, 1998)
과거 전력 척도 (Historical Scale)	과거 폭행 유무	요인 1: 대인관계 변수	요인 2: 사회적 일탈 변수	PCL 점수
	최초 폭행 연령	경쾌한/피상적인 매력	자극에 대한 욕구 / 쉽게 권태 느낌	초등학교 적응정도
	대인관계 불안정	과대망상	기생하는 생활습관	최초 범죄연령
	직업 문제	병리적인 거짓말	행동통제력 부족	DSM III 성격장애
	약물 오남용 문제	속이고 조작하기	아동기 행동상의 문제	16세 이전 부모로부터 격리
	주요 정신장애	후회, 죄의식 결여	현실적 장기목표 부재	과거 조건부 가석방 위반경력
	정신병질적 소양	낮은 정서성	충동성	비폭력 범죄전력
	초기 부적응	무감각/공감능력 부족	무책임함	결혼한 적 없음
	성격장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	청소년기 비행력	DSM III 정신분열증
	과거 보호관찰 실패		조건부 가석방의 취소	범죄시 피해자 상해
임상척도 (Clinical Scale)	통찰력 부족		다양한 범죄경력	음주경력
	부정적 태도			남성피해자 유무
	현재 주요 장신장애 증상			
	충동성			
	치료 무반응			
위험관리 척도 (Risk Management Scale)	계획의 실현가능성 회박			
	불안요인에 노출			
	지지관계 부족			
	치료를 무반응적			
	스트레스			

들은 PCL-R의 타당도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시한다.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는 HCR-20(Webster, Douglas, Eaves, & Hart, 1997)와 VRAG(Quinsey, Harris, Rice,

& Cormier, 1998)가 있다(표 1).

재범연구 분석방법

여기서 잠깐 재범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분석방법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 원래 신호탐지이론으로부터 출발하게 된 ROC분석은 ROC는 4 가지 예측가능성에 근거한다. 우선 위험하다고 예측한 범죄자가 후에 진짜로 재범을 하는 경우(TP; True Positive), 위험하다고 예측하였으나 재범을 하지 않는 경우(FP; False Positive), 위험하지 않다고 예측하였던 범죄자가 나중에도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 경우(TN; True Negative), 위험하지 않다고 예측하였으나 후에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FN; False Negative) 네 가지가 재범예측 시 고려되어야 할 가능성일 것이다(Metz, Wang, & Kronman, 1984). 이 네 가지 가능성을 토대로 하여 예측력에 관한 두 가지 지표를 산출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측도구의 민감성(sensitivity)과 한정성(specificity)이다. 참고로 민감성 지표는 $TP/(TP+FN)$ 으로 한정성 지표는 $TN/(FP+TN)$ 으로 산출한다. 이들 두 지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진정한 재범자를 잘 맞출 확률과 진정한 비재범자를 잘 맞출 확률은 증가하는 것이다.

일정한 기준을 토대로 재범예측을 하고, 후에 준거행동을 토대로 ROC 분석을 실시하여 산출된 그림 2에서의 곡선은 예측의 도구가 변별기준을 중심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재범을 예측해주는지 하는 효과크기(effect size)를 반영한다. TP와 FP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 AUC(Area Under Curve)는 만일 100%의 TP와 0%의 FP를 기록하면 면적은 1 혹은 100이 된다(e.g., high sensitivity). 하지만 만일 재범예측의 기준이 진정한 재범자 중 단지 50%만을 제대로 예측해내고

진정한 비재범자 중 50%를 재범할 것이라 잘못 예측하게 되면 50 혹은 .5의 AUC를 지니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측도구들은 FP에 비하여 TP가 상대적으로 더 크기를 기대한다. 이런 ROC 분석은 기저율이나 선별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기(Loeber & Dishion, 1983)에 최근에는 다양한 예언타당도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Cohen(1992)에 따르자면 .70 이상의 AUC는 효과 크기(d) .80 혹은 상관계수 .50에 대응되며, AUC .65는 d .50, 상관계수 .10에 해당되며, AUC .50은 d 0, 상관계수 0에 대응된다고 보고하였다.

정신병질의 재범예측력

정신병질적 특성은 성인범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많은 연구들에서 성관련 범죄(Firestone, Bradford, Greenberg, & Larose, 1998)나 폭력범죄(Serin & Amos, 1995)를 잘 예측한다고 알려진다(Hart & Kropp, & Hare, 1988). 나아가 소년범의 재범예측에도 상당히 훌륭한 예언력을 보인다는 것이 최근 확인되기도 하였다(Gretton, 1998). 정신병질의 도구로 가장 유명한 PCL-R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다고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Hare(1991)는 자신이 개발하였던 PCL-R에는 두 개의 요인들, 이기주의적이면서 무감각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첫 번째 요인과 비행력과 관련 행동패턴으로 구성된 두 번째 요인이 확인된다고 보고하였다. 가장 위험하다고 구분된 정신병력을 지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Gray, Hill, McGleish, Timmons, MacCulloch, & Snowden, 2003)는 그림 5에서와 같은 폭력에 대한 재발 예측 결과를 보고하였다. PCL-R의 첫 번째 요인보다는 두 번째 요인이 기물파괴행위를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때 첫 번째 요인의 AUC는 .60이었고 두 번째 요인의 AUC는 .87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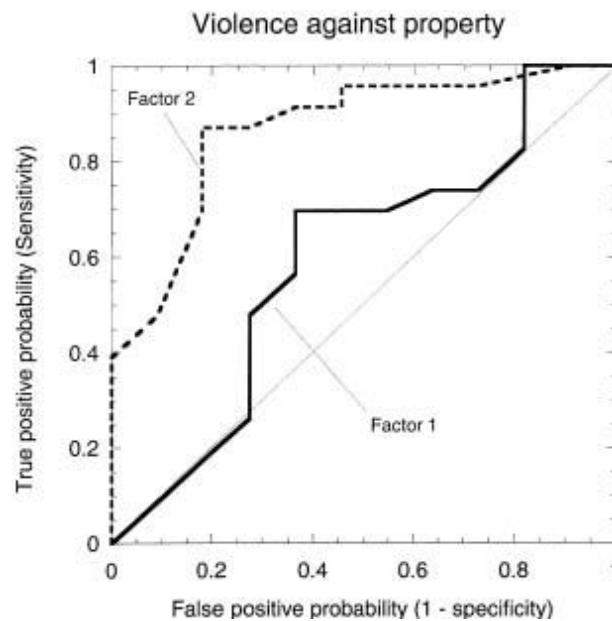


그림 5. PCL-R의 폭행 예측력 (Gray, Hill, McGleish, Timmons, MacCulloch, & Snowden, 2003)

소년범들의 재범을 예측하고자 하였던 또 다른 연구(Forth, Hart, & Hare, 1990)에서는 소년범들의 PCL 점수가 75명의 소년범들의 총 재범빈도와는 .14 폭력관련 재범빈도와는.26의 단순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PCL을 기준으로 소년들의 재범에 대한 판별분석은 89.3%의 일치율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아가 정신병질 도구들의 예언타당도에 관한 재범연구들(Hare, 1996; Hare et al, 1992; Harris, Rice, Cormier, 2002; Harris, Rice, & Quincey, 1993; Douglas, Ogloff, Nicholls, & Grant, 1999)은 PCL-R의 폭력성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평균 예측력(AUC)은 약 .68, 신체적인 폭력에 대한 평균 예측력(AUC)은 약 .73, 성폭력에 관한 평균 예측력(AUC)은 약 .69 정도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비해 HCR-20의 신체적 폭력에 관한 평균 예측력

(AUC)은 약 .76, 폭력적 범법행위에 관한 예측력(AUC)은 .80이며 VRAG의 폭력에 관한 평균 예측력(AUC)은 약 .83, 성폭력에 관한 평균 예측력(AUC)은 약 .71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물론 어떤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얼마만큼의 기간을 두고 이 같은 연구를 하였는가에 따라 예측력의 정도가 약간씩 변동되고는 있지만 결과들은 대충 PCL-R 이후 개발된 VRAG나 HCR-20의 예언타당도를 약간씩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PCL-R, HCR-20, VRAG 는 모두 범죄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평가자에게 요구한다. 이들 세 가지 도구들은 전통적인 심리검사의 양식인 지필검사 방식을 택하는 대신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한 판단절차를 요구한다. 이는 자기보고로 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심리검사가 피검자의 의도적인 왜곡에 취약하다

는 점을 고려하여 더 객관적인 형태의 보고양식을 선택했음을 시사한다.

논 의

범죄행동의 책임능력여부와 관련지어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되는 것이 범죄자의 정신적인 결함이다. 우리나라 형법에 의하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10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물변별력'이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며, '의사결정력'이란 의지적인 무능력의 경우로 저항불능의 충동(irresistible impulse)에 관한 것이다. 즉 정신병(특히 정신분열증²¹⁾)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인 현실 검증력의 결여가 범죄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신병질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현실검증력을 지니는가? 즉 정신증과의 차별성은 과연 존재하는가? 이 논문은 이 문제에 대한 해

답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정신병질이란 정신장애의 일종이긴 하지만 사물변별력에 큰 손상이 오는 정신증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이들은 간혹 신경과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정신분열증의 경우에서처럼 지배적인 양상은 아니며 이들이 지니는 성적 환상 역시 정신분열증의 환각이나 환청과는 다른 형태를 지닌다. 정신병질자들은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하여 일상생활에 비교적 적응적이며 의사결정 과정도 평시에는 정상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본인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이성적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지능 수준이 현저히 높은 경우도 있다. 이런 점을 토대로 볼 때 정신병질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복미에서와 같이 위험성 평가를 치밀하게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신증적 범죄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치료감호 제도 등을 통해 격리 수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형사정책의 그 어떤 절차에서도 피의자의 정신병질적 특성을 포착해내기는 힘들다. 그로 인해 결국 정신병질자는 '책임능력이 있는 자' 즉, 정상인군으로 분류되어 형기를 마치게 되면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사회로 복귀된다. 이것은 재범을 할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집단을 범죄감염 등 교도소 내에서 범죄성을 증가시킨 채로 사회로 유기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신병질자의 반사회적 행동은 특히 성폭행이나 유아강간 등 극단적으로 비도덕적인 행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정신병질자의 초기 발병 역시 선별해 낼 아무런 절차가 없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고려해본다면, 정신병질적 특성을 지닌 나이 어린 범죄자는 앞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통한 선정적이며 폭력적인 자극물들은 우리 사회의 이런 무방비와 상승 작용하여 개인의

21) 정신분열증의 진단준거 (DSM-IV)

- A. 특징적 증상 : 망상, 환각, 왜곡된 언어, 심하게 왜곡된 행동이나 긴장증적 행동, 음성증상 중 2개 또는 그 이상이 1개월 중 상당기간 존재해야 함
- B. 사회적, 직업적 기능부전 : 발병 후 상당기간 동안 직업이나 대인관계 또는 자기관리와 같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요 생활영역의 기능 수준이 발병 이전과 비교하여 현저히 감소되는 경우
- C. 기간 : 장애의 징후가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함
- D. 분열정동장애와 기분장애의 배제
- E. 물질 및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의 배제
- F. 광범위한 발달장애와의 관계

잠재적 위험성의 발현기회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인류 역사와 함께 출현했다는 범죄는 그만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특히 범죄의 원인규명에 대한 노력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다. 단순한 인간의 행동, 동기를 이해한다는 것만도 쉽지 않은 일인데, 더욱이 일상적인 행동이 아닌 일상을 저해하는 행동과 관련된 동기를 이해하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다. 하지만 학자들은 범죄와 관련하여 상당히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따라서 정신병질이라는 일관된 특성을 지닌 위험군을 밝히기에 이르렀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들의 사고양식, 행동패턴 등이 밝혀지기에 이르렀다. 이런 과학자들의 연구는 얼핏 보자면 범죄성향의 치유에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신병질자(psychopaths)라는 용어 자체가 갖는 독특한 느낌과 무관하지 않은데, 즉 특정집단에 대한 낙인 이상 무엇을 더 알려주느냐는 의문이다. 하지만 심리학적 연구결과가 지니는 또 하나의 의의는 원인 기제에 대한 이해 자체가 바로 대안의 제시도 된다는 점이다. 정신병질의 행동특성 및 발병원인에 대한 이해는 구체적인 치료대안의 제공에도 도움이 된다. 예컨대 세로토닌계의 비정상적 활동을 정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약물은 우울증 뿐 아니라 정신병질의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나아가 정서적 의사소통력을 향상시키는 여러 시도들은 교도소 내 정신병질적 재소자들의 전문화된 처우 방안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자면 정신병질적 특성에 대한 평가가 단지 두 번의 처벌(double jeopardy)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형사정책 분야는 어떤 사회에서나 가장 보수적인 분야이다. 규범학적인 접근이 주된 철학을

구성하는 이 분야에 있어 실증학문인 심리학은 설 곳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인간의 내적 특성에 대해 수 십 년간의 축적된 연구의 결과는 실제 정책의 입안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잠재적 범죄 위험요인으로서 정신병질에 대한 평가는 단지 수형자의 분류를 넘어서서 재범에 대한 개별 수준의 예측, 그리고 구체적인 처우 방안의 제시와 보호관찰 방안의 모색에도 나름대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본다.

참고문헌

- 박순진 (2003).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의 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2003년도 가을 학술세미나 논문집, 25-44.
- Abraham, K. (1927). Character-formation on the genital level of the libido. In K. Abraham, *Selected papers on psychoanalysis*. London: Hogarth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25)
- Achenbach, T. M., & Edelbrock, C. (1983). *Manual of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ichorn, A. (1925). *Wayward youth*. New York: Viking.
- Alexander, F. (1930). *Psychoanalysis of the total personality*. New York: Nervous and Mental Disease Publications. (Original work published 1923).
- Alexander, F. (1930). The neurotic charact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11, 282-313.
- Arthur, R. G. & Cahoon, E. B. (1964). A clinical and electroencephalographic survey of

- psychopathic personalit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0, 875-882.
- Bandura, A., & Walters, R. H. (1959). *Adolescent aggression*. New York: Ronald Press.
- Beck, A. T., Freeman, A. (1990).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s*. New York : Guilford Press.
- Berger, H. (1929). Uber das Electrenkephalogram des Menschen. *Archiv fur Psychiatrie und Nevenkrankheiten*, 87, 527-570.
- Blackburn, r., & Lee-Evans, M. J. (1985). Reactions of primary and secondary psychopaths to anger evoking situation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 93-100.
- Blumstein, A., Cohen, J., Roth, J., & Visser, C. (1986). *Criminal careers and "career criminal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Burnstein, B. (1972). The manipulative personalit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 318-321.
- Burt, S. A., Krueger, R. F., McGue, M., & Iacono, W. G. (2001). Sources of covariation among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and conduct disorder: the importance of shared environm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0, 516-525.
- Buss, A. H. (1961). *The Psychology of Aggression*. New York: Wiley.
- Campbell, A. (1993). *Men, women, and aggression*. New York: Basic Books.
- Cantwell, D. P. (1975). A medical model for research and clinical use with hyperactive children. In D. P. Cantwell (Ed.), *The hyperactive child*. New York: Spectrum.
- Cleckley, H. M. (1976). *The mask of sanity: an attempt to clarify some issues about the so-called psychopathic personality*. (5th ed). St. Louis : Mosby. WM 210 C623M 1976
- Cleckley, H. M. (1982). *The mask of sanity* (rev. ed.). New York: Plume.
- Cloninger, C. R., & Gottesman, I. L. (1987). Genetic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antisocial behavior disorders. In S. A. Mednick, T. E. Moffitt, & S. A. Stack (Eds.), *Causes of crime: New biological approaches* (pp. 92-109).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loninger, C. R. (1987). A systematic method for clinical description and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varia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4, 573-588.
- Cloninger, C. R., Sivadsson, S., Bohman, M., & von Knorring, A. (1982). Predisposition to petty criminality in Swedish adoptees: II. Cross-fostering analysis of gene-environment interac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9, 1242-1253.
- Cohen, J. (1992). A power primer. *Psychological Bulletin*, 112, 155-159.
- Cooke, D. J. (1998). Psychopathy across cultures. In D. J. Cooke, A. E., Forth, & R. D. Hare (Eds.) *Psychopathy: Theory, research and implication for society* (pp. 101-120). Dordrecht, The Netherlands Kluwer.
- Cosra, P. T., & Widiger, T. (Eds.) (1994). *Personality disorders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uthbert, B. N., Bradley, M. M., & Lang, P. J. (1996). Probing picture perception: Activation and emotion.

- Psychophysiology*, 33, 103-111.
- Davis, M. (1979). Diazepam and flurazepam: Effects on conditioned fear as measured with the potentiated startle paradigm. *Psychopharmacology*, 62, 1-7.
- Demyer-Gapin, S., & Scott, T. J. (1977). Effect of stimulus novelty on stimulation seeking in antisocial and neurotic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6, 96-98.
- Devonshire, P. A., Howard, R. C., & Sellars, C. (1988). Frontal lobe dysfunction and mentally abnormal offende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 339-344.
- DiLalla, L. F. & Gottesman, I. I. (1989). Biological and genetic contributors to violence: Widom's untold tale. *Psychological Bulletin*, 109, 125-129.
- Dodge, K. A. (1993). The future of research on the treatment of conduct disorde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311-319.
- Douglas, K. S., Ogloff, J. P., Nicholls, T. L., & Grant, I. (1999). Assessing risk for violence among psychiatric patients: The HCR-20 violence risk assessment scheme and the Psychopathy Checklist: Screening Ver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pathology*, 67, 917-930.
- Dumas, J. E., Gibson, J. A., Albin, J. B. (1989). Behavioral correlates of maternal depressive symptomatology in conduct-disorder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57, 516-521.
- Ehrlich, S. K. & Keogh, R. P. (1956). The psychopath in mental institution. *Archives of Neurology and Psychiatry*, 76, 286-295.
- Ekblad, S. (1988). Influence of child-rearing on aggression behavior in a transcultural perspective.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78, 133-139.
- Eysenck, H. J. (1964). *Crime and Personality*. London : Methuen.
- Eysenck, H. J. (1967). *The biological basis of personality*.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Eysenck, H. J. (1977). *Crime and personality* (2nd ed.).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Fairweather, G. W. (1954). The effect of selective incentive conditions on the performance of psychopathic, neurotic, and normal criminals in a serial rote learning situatio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14, 394-395. (University Microfilms No. 6940)
- Fanselow, M. S. (1994). Neural organization of the defensive behavior system responsible for fear. *Psychonomic Bulletin and Review*, 1, 429-438.
- Farrington, D. P. (1987). Predicting individual crime rates. In D. M. Gottfredson & M. Tonry (Eds.), *Prediction and classification* (Vol. 10).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arrington, D. P., & West, D. J. (1990). The Cambridge study in delinquent development: A long-term follow-up of 411 London males. In H. J. Kerner, & G. Kaiser(Eds.), *Criminality: Personality, behavior, life history*. Heidelberg, Germany: Springer-Verlag.
- Farrington, Ohlin, & Wilson, (1986). Age and crime.

- Crime and Justice: An Annual Review of Research*, 7, 189-250.
- Fenichel, O. (1945). *The psychoanalytic theory of neurosis*. New York: Praeger.
- Firestone, P., Bradford, J. M., Greenberg, D. M., & Larose, M. R. (1998). Homicidal sex offenders : Psychological, Phallometric and diagnostic features. *Journal of American Academic Psychiatry Law*, 26, 537-552.
- Forth, A. E., Hart, S. D., & Hare, R. D. (1990). Assessment of psychopathy in male young offenders. *Psychological Assessment: 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 342-244.
- Frick, P. J. (1998). *Conduct disorders and severe antisocial behavior*. New York: Plenum.
- Frick, P. J., Barry, C. T., & Bodin, S. D. (in press). Applying the concept of psychopathy to children: Implications for the assessment of antisocial youth. In C. B. Gacono (Ed.), *The clinical and forensic assessment of psychopathy: A practitioner's guide*. Hillsdale, NJ: Erlbaum.
- Frijda, N. H. (1986). *The emotion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omm, E. (1973). *The autonomy of human destructivenes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Goldsmith, H. H., & Gottesman, I. L. (1996). Heritable variability and variable heriability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M. Lenzenweger & J. Haugaard(Eds.), *Frontiers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p 5-4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orenstein, E. E. (1982). Frontal lobe functions in psychopath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1, 368-379.
- Gorenstein, E. E., & Newman, J. P. (1980). Disinhibitory psychopathology: A new perspective and a model for research. *Psychological Review*, 87, 301-315.
- Gough, H. G. (1948). A sociological theory of psychopatholog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53, 359-366.
- Gouster, M. (1878). Moral insanity. *Review of Scientific Medicine*, 38, 115-131.
- Gray, K. C. & Hutchison, H. C. (1964). The psychopathic personality: A survey of Canadian psychiatrists' opinions. *Canadian Psychiatric Association Journal*, 9, 452-461.
- Gray, N. S., Hill, C., McGleish, A., Timmons, D., MacCulloch, M. J., & Snowden, R. J. (2003). Prediction of violence and self-harm in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 prospective study of the efficacy of HCR-20, PCL-R, and psychiatric symptomatolog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 443-451.
- Gretton, H. M. (1998). *Psychopathy and recidivism in adolescents: A 10-year retrospective follow-up*. Vancouver, Canada: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Gullick, E. L., Sutker, P. B., & Adams, H. E. (1976). Delay of information in paired-associate

- learning among incarcerated groups of sociopath and heroin addicts. *Psychological Reports*, 38, 143-151.
- Hare, R. D. (1970). *Psychopathy*. New York: Wiley.
- Hare, R. D. (1978). Electrodermal and cardiovascular correlates of psychopathy. In R. D. Hare, & D. Schalling(Eds.), *Psychopathic behavior: Approaches to research* (pp107-143). New York : Wiley.
- Hare, R. D. (1984). Performance of psychopath on cognitive task related to frontal lobe functi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3, 143-140.
- Hare, R. D. (1986).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 Toronto Multi-Health Systems.
- Hare, R. D. (1991).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Toronto, Ontario, Canada: Multi-Health Systems.
- Hare, R. D. (1996). Psychopathy: A clinical construct whose time has com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3, 25-54.
- Hare, R. D., & Craigen, D. (1974). Psychopathy and physiological activity in a mixed-motive game situation. *Psychophysiology*, 11, 197-206.
- Hare, R. D., Forth, A. E., & Stachan, K. E. (1992). Psychopathy and crime across the life span. In R. D. Peters, R. J. McMahon, & V. L. Quinsey (eds.), *Aggression and Violence Throughout the Life Span*. Newbury Park, CA: Sage.
- Harris, G. T., Rice, M. E., & Cormier, C. A. (2002). Prospective replication of the Violence Risk Appraisal Guide in predicting violent recidivism among forensic patients. *Law and Human Behavior*, 26, 377-394.
- Harris, G. T., Rice, M. E., & Quinsey, V. L. (1993). Violent recidivism of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The development of a statistical prediction instrument.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0, 315-335.
- Hart, S. D., & Dempster, R. J. (1997). Impulsivity and psychopathy. In C. D. Webster & M. A. Jackson(Eds.), *Impulsivity: Theory, Assessment and Treatment*(pp.212-232). New York: Guildford.
- Hart, S. D., Kropp, P. R., & Hare, R. D., (1988). Performance of psychopaths following conditional release from pris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227-232.
-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s. In P. H. Mussen (Ed.), *Manual of child psychology*. New York: Wiley.
- Helweg, H. (1948). Psykopathilbegrebets uundvaerlighed. *Memmeske og Miljø*, 3-4, 105-112.
- Hill, D. (1952). EEG in episodic, psychotic and psychopathic behaviour ; A classification of data. *EEG Journal*, 4, 419-442.
- Hirschi, T., & Gottfredson, M. (1983). *A general theory of crime*.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Jutai, J. W., & Hare, R. D. (1983). Psychopathy and selective attention during performance of a complex perceptual-motor task. *Psychophysiology*, 20, 146-151.
- Kagan, J., Reznick, J. S., & Snidman, N. (1990). The temperamental qualities of inhibition and lack of inhibition. In M. Lewis & S. M. Miller (Eds.),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p. 219-226). New York: Plenum.
- Kandal, E., & Freed, D. (1989). Frontal-lobe

- dysfunctions and antisocial behavior: A review.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5, 404-413.
- Karpman, B. (1941). On the need for separating psychopath into two distinct clinical types: Symptomatic and idiopathic. *Journal. of Clin. Psychopathology*, 3, 112-137.
- Kernberg, O. F. (1970). Factors in the psychoanalytic therapy of narcissistic patients. *J.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18, 51-85.
- Kosson, D. S., Suchy, Y., Mayer, A. R., & Libby, J. (2002). Facial affect recognition in criminal psychopaths. *Emotion*, 2, 398-411.
- Leary, T. (1957). *Internati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Ronald Press.
- LeDoux, J. E. (1995). Emotion: Clues from the brai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6, 209-235.
- Levy, D. M. (1951). Psychopathic behavior in infants and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21, 223-272.
- Loeber, R. & Schmaleng, K. (1985). Empirical evidence for overt and covert patterns of antisocial conduc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3, 337-352.
- Loeber, R., & Dishion, T. (1983). Early predictors of male delinquency. *Psychological Bulletin*, 94, 68-99.
- Loeber, R., & Stouthamer-Loeber, M. (1998). Development of juvenile aggression and violence: Some common misconceptions and controversies. *American Psychologist*, 53, 242-259.
- Loeber, R., Lahey, B. B., & Thomas, C. (1991). The diagnostic conundrum of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and conduct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379-390.
- Lombroso, C. (1872-1887). *L'uomo delinquente*. Turin, Italy: Bocca.
- Lornez, K. (1966). *On aggression*.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Lykken, D. T. (1957). A study of anxiety in the sociopathic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5, 6-10.
- Lykken, D. T. (1995). *The antisocial personalities*. Hillsdale, NJ : Erlbaum.
- Lyon, M. J., True, W. R., Einsen, S. A., Goldberg, J., Meyer, J. M., Farazone, S. V., Eaves, L. J., & Tsuang, M. T. (1995). Differential heritability of adult and Juvenile antisocial trai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2, 906-915.
- Marshall, L., & Cooke, D. J. (1999). The childhood experiences of psychopath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3, 211-225.
- Maudsley, H. (1874). *Responsibility in mental disease*. London: King.
- McCord, W. M., & McCord, J. (1964). *The psychopath*. Princeton, NJ: Van Nostrand.
- McGuffin, P., & Thapar, A. (1997). The genetic basis of bad behavior in adolescence. *Lancet*, 350, 411-412.
- Mednick, S. A., Gabrielli, J. F., & Hutchings, B. (1984). Genetic influences in criminal convictions: evidence from an adoption court. *Science*, 224, 891-894.
- Metz C. E., Wang P. L., & Kronman H. B. (1984). A new approach for testing the significance of differences between ROC curves measured from correlated data. In: *Information Processing in*

- Medical Imaging*, pp. 432-445.
- Meyer, A. (1904). A review of recent problems of psychiatry. In A. Church & F. Peterson, *Nervous and mental disease* (4th ed.). Baltimore: Williams & Willkins.
- Millon, T. (1969). *Modern Psychopathology: A biosocial, approach the maladaptive learning functioning*. Philadelphia: W. B. Sanunders.
- Moffitt, T.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674-701.
- Moffitt, T.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674-701.
- Monahan, J. (1981). *The clinical pred iction of violent behavior*.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House.
- Newman, J. P, Widson, C. S., & Nathan, S. (1985). Passive avoidance in syndromes of disinhibition: Psychopathy and extraver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316-1327.
- Niedermeyer, A. A. (1963). *Der Nervenarzt*, 34, 168.
- Offord, D. R, Boyle, M. C., & Racine, Y. A. (1991). The epidemiology of antisocial behavior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In D. J. Pepler & K. H. Rubi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Hillsdale, NJ: Erlbaum.
- Olweus, D. (1978). Antisocial behavior in the school setting. In R. D. Hare, & D. Schalling(Eds.), *Psychopathic behavior: Approaches to research* pp. 9-327). New York : Wiley.
- Painting, D. H. (1961). The performance of psychopathic individuals under conditions of positive and negative partial reinforcem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62, 352-355.
- Paris, J. (1993). Personality disorders: A biological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7, 255-264.
- Partridge, G. E. (1930). Current conceptions of psychopathic personalit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0, 53-99.
- Patrick, C. J., Berthot, B. D., & Moore, J. D. (1996). Diazepam blocks fear potentiated startle in huma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89-96.
- Patrick, C, J., & Lacono, W, G(2000). Alcohol use disorders and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APD) : Does comorbidity simply reflect excessive alcohol use as a symptom of APD. *Paper presented at the 12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Miami Beach, FL.
- Patrick, C. J., Bradley, M. M., & Lang, P. J. (1993). Emotion in the criminal Psychopath: Startle reflex mod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82-92.
- Patrick, C. J., Cuthbert, B. N., & Lang, P. J. (1994). Emotion in the criminal psychopath: Fear image processing.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523-534.
- Patterson, (1982). *Coercive family process*. Eugenc, OR: Castalia.
- Petherick, W. (2003). The role of profiling in American society: Criminal profiling: What's in

- a name? Comparing applied profiling methodologies. *Journal of Law and Social Challenges*, 173, 1-26.
- Pollock V. E., Briere, J., Schneider, L., Knop, J., Mednick, S. A., & Goodwin, D. W. (1990). Childhood antecedents of antisocial behavior. Parental alcoholism and physical abusivenes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7, 1290-1293.
- Prichard, J. C. (1835). *A treatise on insanity and other disorders affecting the mind*. London : Sherwood, Gilbert & Piper.
- Quay, H. C. (1965). Psychopathic personality as pathological stimulation-seeking.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2, 180-183.
- Quinsey, V. L., Harris, G. T., Rice, M. E., & Cormier, C. A. (1998). *Violent Offenders: Appraising and Managing Risk*.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ichman, M., Stevenson, J., & Graham, P.J. (1982). *Preschool to school: A behavioral study*. London: Academic Press
- Rime, B., Boury, H., Rebongne, B., & Rouillon, E. (1978). Psychopathy and nonverbal behavior in an interpersonal situ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833-841.
- Robins, L. N. (1966). *Deviant Children Grown-up*. Baltimore : Williams & Wilkins.
- Robins, L. N. (1978). Sturdy childhood predictors of adults antisocial behavior: Replications from longitudinal studies. *Psychological Medicine*, 8, 611-622.
- Robins, L. N. (1981). Epidemiological approaches to natural history research.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0, 566-580.
- Rush, B. (1812). *Medical inquiries and observation upon the disease of the mind*. Philadelphia : Kimber & Richardson.
- Schalling, D. (1978). Psychopathy-related personality variables and the psychopathology of socialization. In R. D. Hare & D. Schalling (Eds.), *Psychopaths behavior: Approaches to research* (pp. 85-106). New York: Wiley.
- Schmank, F. I. (1970). Punishment, arousal, and avoidance learning in sociopath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6, 325-335.
- Schneider, K. (1923). *Die psychopathischen personlichkeiten*. Vienna: Deuticke.
- Schulsinger, F. (1972). Psychopathy: Heredity and environ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1, 199-206.
- Serin, R. C. & Amos, N. L. (1995). The role of psychopathy in the assessment of dangerous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 Psychiatry*, 18, 231-238.
- Stürup, G. K. (1948). Sexualforbrydelse og kastration. *Minneske og Miljø*, 3, 112-118.
- Stenberg, C. & Campos, J. J. (1990). The development of anger expressions in infancy. In N. Stein, B. Leventhal & T. Trakasso (Eds.) *Psychological and biological approaches to emotion*. Hillsdale, NS: Erlbaum.
- Sterling, S., & Edelmann, R. J. (1988). Reactions to anger and anxiety-provoking events: Psychopathic and nonpsychopathic groups compared.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4, 96-100.
- Sutker, P. B. (1970). Vicarious conditioning and

- sociopath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6, 380-386.
- Sutker, P. B., Archer, R. P., & Allain, A. N. (1978). Drug abuse pattern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relationships with sex, race, and sensation-seek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1374-1378.
- Sutker, P. B., Moan, C. E., & Swanson, W. C. (1972). Porteus Maze Test qualitative performance in pure sociopaths, prison normals, and antisocial psychotic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8, 349-353.
- Sutton, S.K., Vitale, J. E., & Newman, J. P. (2002). Emotion among women with psychopathy during picture percep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1, 610-619.
- Taylor, Iacono, & McGue, (2000). Sex differences, assortative mating, and cultural transmission effects on adolescent delinquency: A twin family stud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41, 433-440.
- Tellegen, A., Lykken, D. T., Bouchard, T. J., Wilcox, K. J., Segal, N. L., & Rich, S. (1988). Personality similarity in twins reared apart and togeth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31-1039.
- Tuke, D. H. (1892). *Dictionary of psychological medicine*. Philadelphia: Blakiston.
- Webster, C. D., Douglas, K. S., Eaves, D., & Hart, S. D. (1997). *HCR-20: Assessing the Risk for Violence* (Version 2). Vancouver: Mental Health, Law, and Policy Institute, Simon Fraser University.
- Widom, C. S. (1976a). Interpersonal and construct systems in psychopath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4, 614-623.
- Widom, C. S. (1976b). Interpersonal conflict and cooperation in psychopath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5, 330-334.
- Widom, C. S. (1977). A methodology for studying noninstitutionalized psychopath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 674-683.
- Wimmer, A. (1929). *Sindsygedommes arvegang og raceforbaedrende bestraelser*. Copenhagen: Levin & Munksgaard.
- Wolfgang, M. E., Thornberry, T. P., & Figlio, R. M. (1987). *From boy to man, from delinquency to crim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ttp://www.angelfire.com/zine/narcissism/antisocial_sociopath.html ..

1 차원고집수일 : 2004. 3. 5

최종원고집수일 : 2004. 7. 30

Psychopathy as a Risk Factor of Crime

Soo Jung Lee

Criminal Psychology,
Kyonggi University

Hae-Hong Huh

Student Consulting Center,
Hanlim University

This literature review introduced the concept of psychopathy which has never been defined academically in Korea. Also it is reviewed how this concept could be applied as latent factor of criminal behavior in the forensic settings. For this purpose, first of all, the periodical change of psychopathy definition was explored. Then it was investigated which determinants might develop psychopathy and what would be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psychopaths. Finally, risk assessment tools measuring psychopathy were introduced and their predictive efficacy and applicability in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was discussed.

key words : psychopathy, antisocial personality, risk assessment, prediction of recidivism